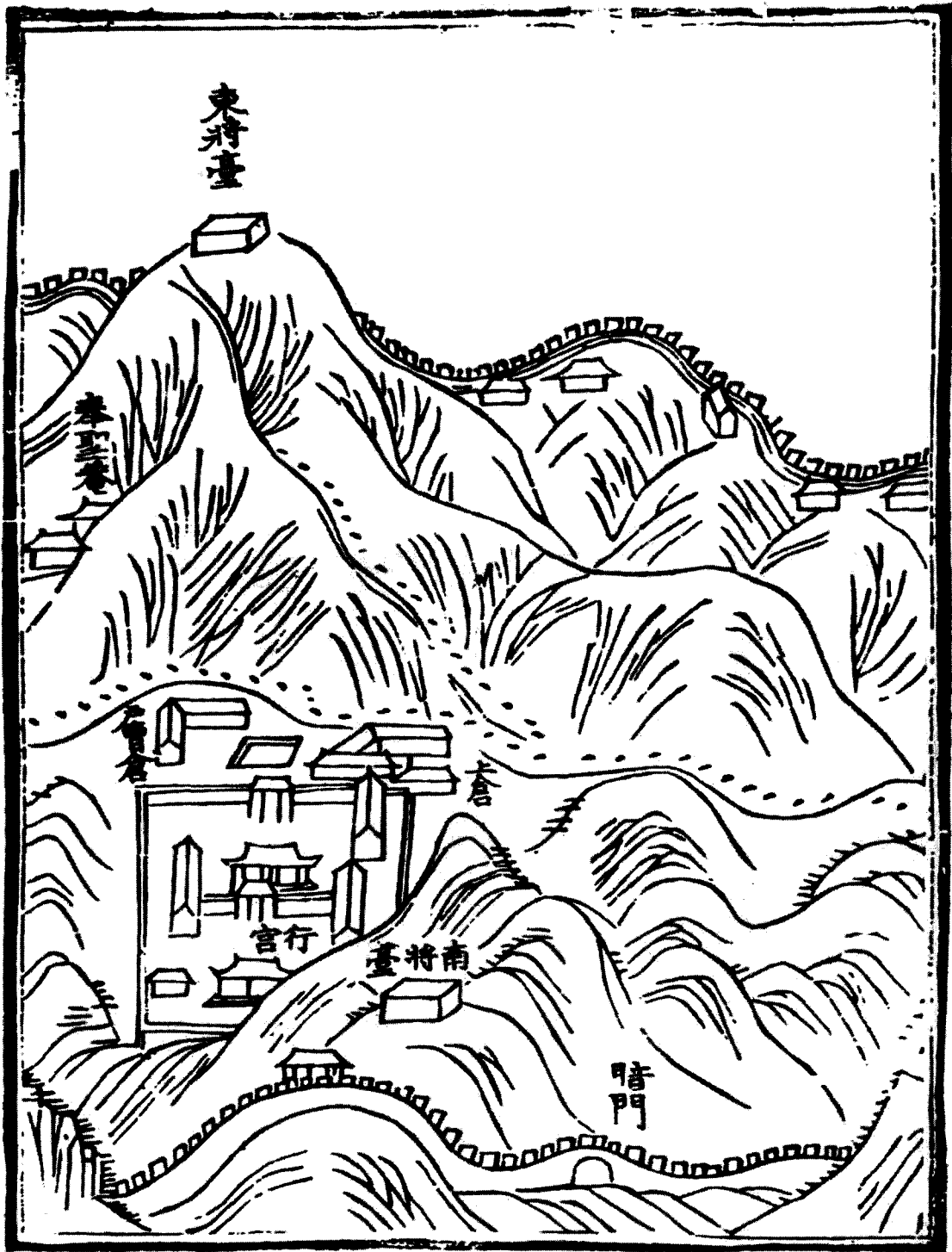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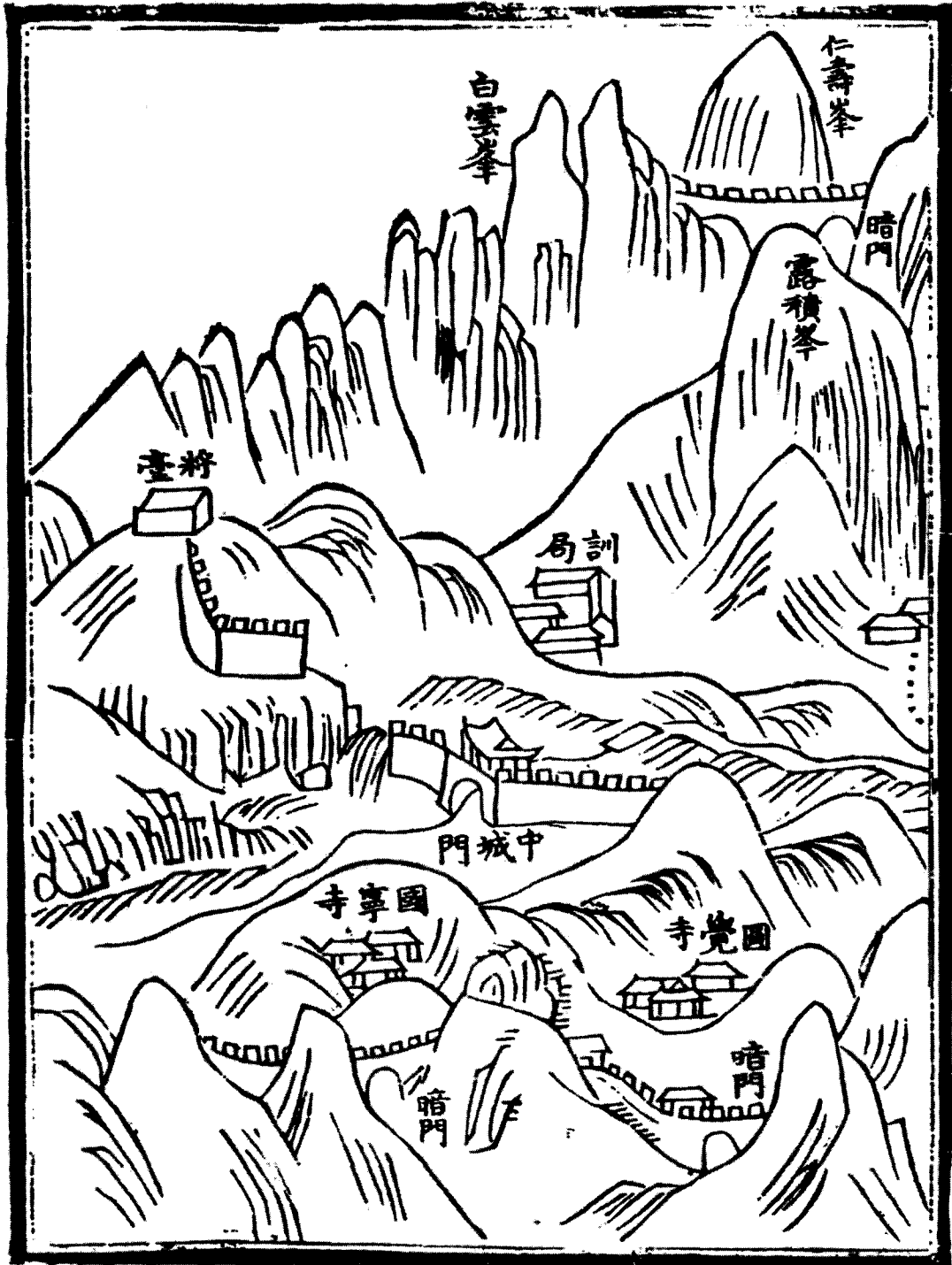


III. 『북한지(北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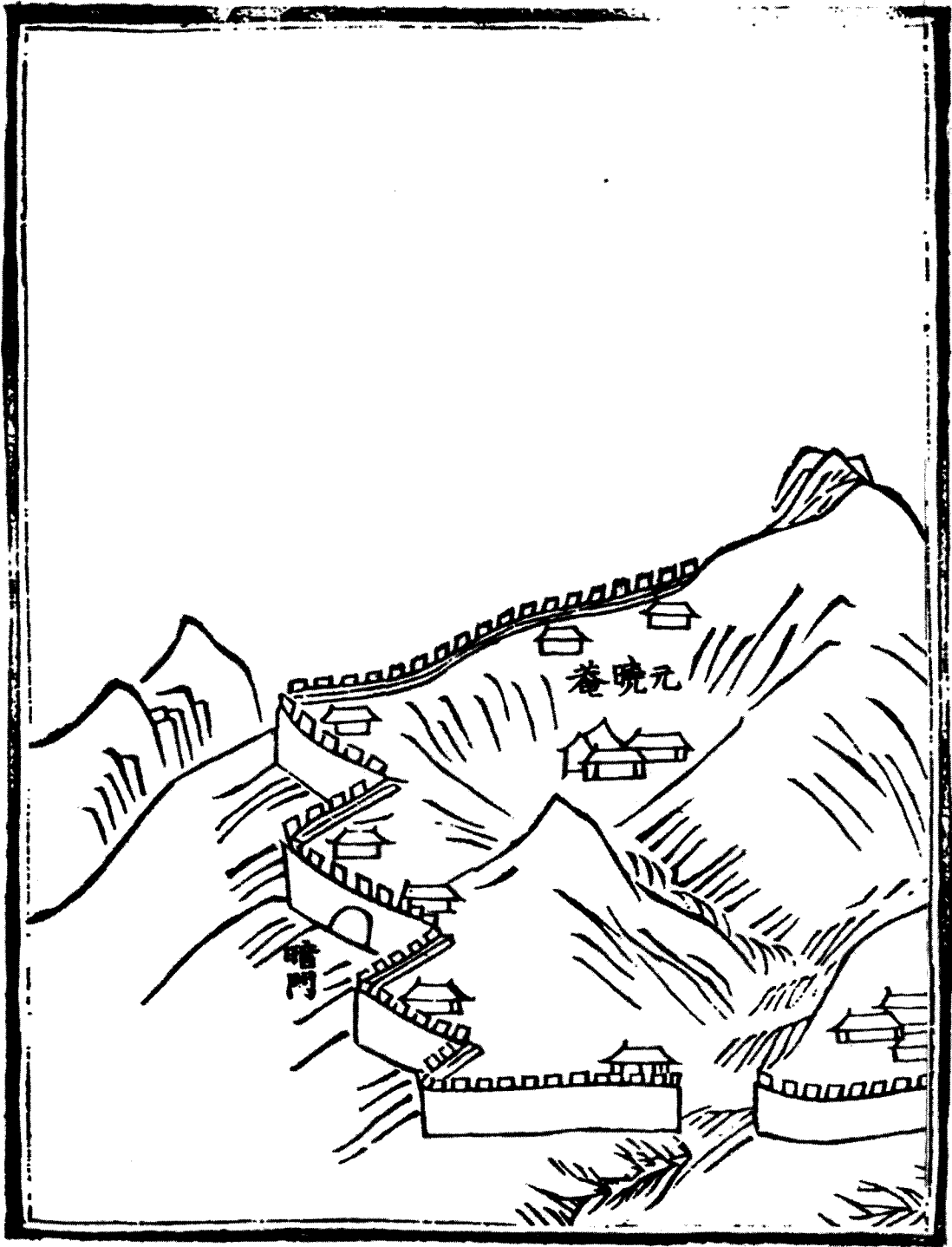
- ◎ 북한도(北漢圖)
- ◎ 도리(道里)
- ◎ 연혁(沿革)
- ◎ 산계(山谿)
- ◎ 성지(城池)
- ◎ 사실(事實)
- ◎ 관원(官員)
- ◎ 장교이졸 부(將校 吏卒 附)
- ◎ 궁전(宮殿)
- ◎ 사찰(寺刹)
- ◎ 누관(樓觀)
- ◎ 교량(橋梁)
- ◎ 창름(倉廩)
- ◎ 정계(定界)
- ◎ 고적(古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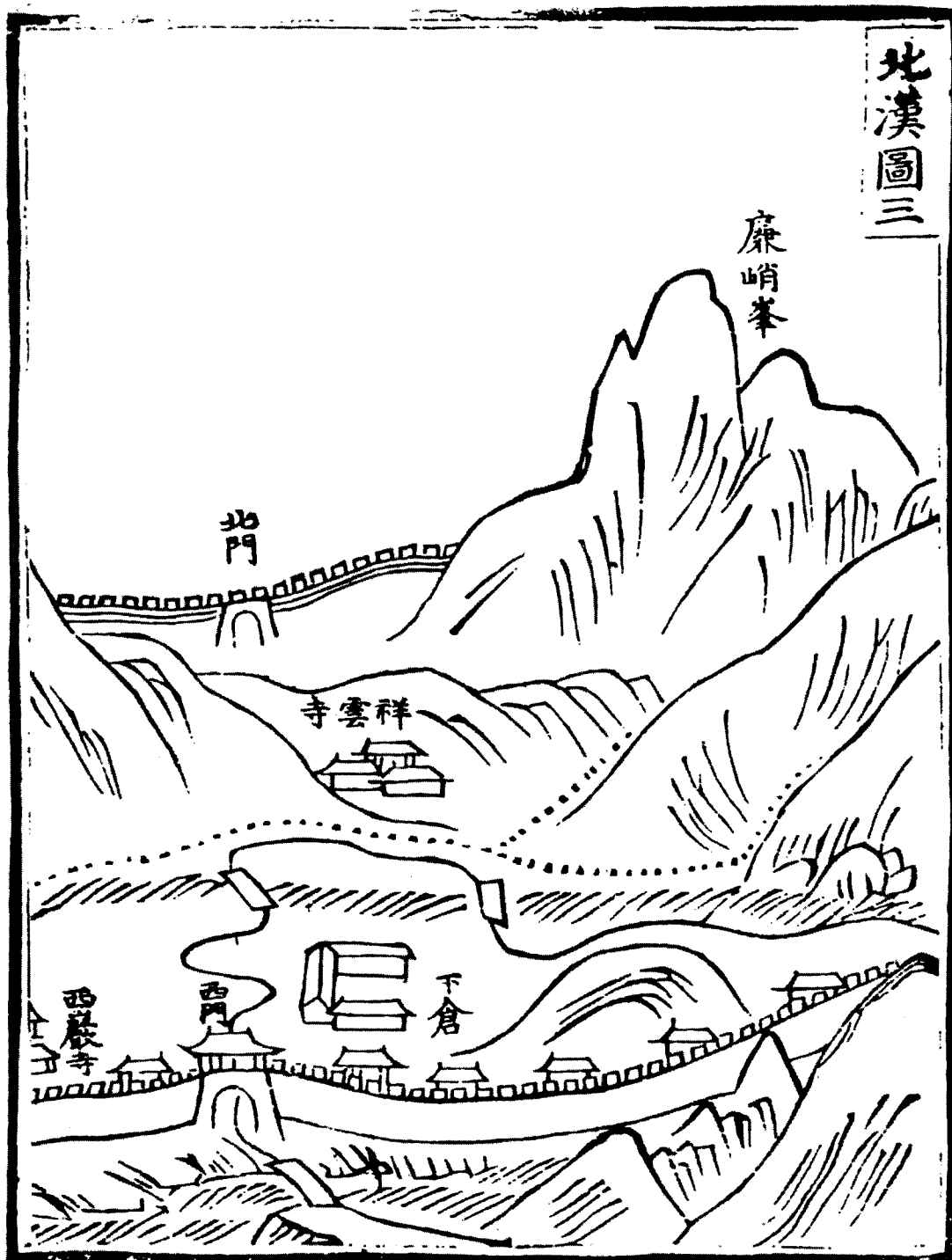












『북한지(北漢誌)』

◎ 도리(道里)

東去楊州牧六十里 西至高陽郡三十里 南至京都十里 北至弘福山二十里 本係楊州今移屬漢城府
 동쪽으로 양주목(楊州牧)까지 60리, 서쪽의 고양군(高陽郡)까지 30리, 남쪽의 경도(京都)까지 10리, 북쪽의 홍복산(弘福山)까지 20리의 거리이다. 본래 양주 소속이었으나, 지금은 한성부(漢城府)로 이속(移屬)되었다.

◎ 연혁(沿革)

本高句麗北漢山郡 一云南平壤 百濟溫祚王取之十四年丙辰 漢哀帝建平二年 築城 總目云南平壤城今京都之北漢山城又三國史云蓋婁王五年壬申築北漢山城 近肖古王二十六年辛未 晉簡文帝咸安元年 移都蓋鹵王二十一年乙卯 宋蒼梧王元徽三年 高句麗長壽王來圍蓋鹵出走遇害城遂廢我肅廟三十七年辛卯卽溫祚舊址築山城以爲保障之所

원래 고구려(高句麗)의 북한산군(北漢山郡)이다. 남평양(南平壤)이라고도 한다. 백제 온조왕이 이를 차지하여 온조왕 14년(기원전 5년: 한·漢 애제(哀帝) 건평(建平) 2년)에 성을 쌓았다.

총목(總目)에 남평양성은 지금 경도(京都)의 북한산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개루왕 5년(132년) 임신(壬申)에 북한산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초고왕 26년(371년: 진·晉 간문제(簡文帝) 함안(咸安) 원년)에 도읍을 이곳으로 옮겼는데, 개로왕 21년(475년: 송·宋 창오왕(蒼梧王) 원징(元徽) 3년)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이 침입하여 이 성을 포위하자 개로왕이 성을 나와 달아나다가 죽음을 당하고 마침내 성은 폐지되었다. 조선 숙종 37년(1711) 신묘에 온조왕의 옛터에 산성을 쌓아 이를 요새로 삼았다.

◎ 산계(山谿)

三角山 山有仁壽白雲萬景三峯屹立巒岿如三角焉 故名一名華山又稱華嶽我東之山起於白頭至平康之分水嶺西出一支連峯疊嶂起伏迤邐 至楊州西南爲道峯山 又爲此山實京城之鎮山也

삼각산(三角山): 산에는 인수(仁壽)·백운(白雲)·만경(萬景) 세 봉우리가 있는데, 깎아 세운 듯이 우뚝 솟은 모양이 마치 세 개의 뿔과 같았으므로 삼각산이란 이름을 붙였다. 일명 화산(華山) 또는 화악(華嶽)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산세는 백두산(白頭山)에서 시작하여 평강(平康)의 분수령에 이르러 서쪽으로 한줄기 지맥(支脈)이 뻗어나가 연봉이 증첩하고 기복이 이어지다가 양주(楊州) 서남쪽에 이르러 도봉산(道峯山)이 되는데, 이 산은 바로 서울의 진산(鎭山)이기도 하다.

□ 高麗吳諫議洵詩 聳空三朶碧芙蓉 縹緲煙露幾萬重 却憶當年倚樓處 日沈蕭寺數聲鍾

□ 李石灘存吾詩 三朶奇峯迥接天 虛無元氣積雲煙 仰看廉利擔長劍 橫似參差聳碧蓮 數載讀書蕭寺裏 二年

留帶漢江邊 孰云造物無情者 今日相看兩慘狀

- 李牧隱穉詩 少年挾冊寄僧窓 靜聽飛泉灑石砦 遙望西崖明歷歷 數聲鐘向夕陽撞 又三峯削出大初時 仙掌指天下稀 自少已知眞面目 人言背後玉環肥
- 本朝金東峯時習詩 三角高峯貫太清 登臨可摘斗牛星 非徒岳岵興雲雨 能使王家萬歲寧

□ 고려 간의(諫議) 오순(吳洵)의 시(詩)

- 하늘로 우뚝 솟은 푸른 봉우려 세 떨기 [聳空三朶碧芙蓉]
- 아득히 피어오르는 안개와 노을은 몇 만 겹이런가 [縹緲煙露幾萬重]
- 그 옛날 누대에 오르던 일 너리에 떠올리니 [却憶當年倚樓處]
- 해는 서산에 지고 스산한 절간에선 문득 종소리가 들리어 오누나 [日沈蕭寺數聲鍾]

□ 석탄(石灘) 이존오(李存吾)의 시

- 세 떨기 꽃송이처럼 기이한 저 봉우리, 마치 하늘에 닿을 듯 [三朶奇峯迥接天]
- 가이없는 저 대기엔 구름과 안개만 첩첩하네 [虛無元氣積雲煙]
- 쳐다보니 날카로운 모습 장검처럼 꽃혔는데 [仰看廉利擔長劍]
- 가로 보니 어긋비듯 푸른 연꽃 솟았네 [橫似參差聳碧蓮]
- 언젠가 두어 해 동안 산사에서 독서했고 [數載讀書蕭寺裏]
- 2년간 한강가에서 머물기도 하였네 [二年留帶漢江邊]
- 그 누가 산천이 무정하다 했던가 [孰云造物無情者]
- 오늘 와 마주하니 피차에 처량하네 [今日相看兩慘然]

□ 목은(救隱) 이색(李穡)의 시

- 젊은 날 절간에 머무르며 공부할 제 [少年挾冊寄僧窓]
- 샘물소리 은은히 들려왔었지 [靜聽飛泉灑石砦]
- 저 멀리 서쪽 암벽엔 햇별이 반짝반짝 [遙望西崖明歷歷]
- 종소리만 이따금 석양의 적막을 두드리네 [數聲鐘向夕陽撞]
- 아득한 태초에 깎아 세운 세 봉우리 [三峯削出大初時]
- 하늘을 가리키는 신선의 저 손바닥 천하에 없는 절경이로세 [仙掌指天天下稀]
- 삼각산의 참모습이야 어릴 적부터 들어서 알았지 [自少已知眞面目]
- ‘이 산 뒤에 양옥환(楊玉環)이 산단다’라고 [人言背後玉環肥]

□ 조선시대 동봉(東峯) 김시습(金時習)의 시

- 높은 삼각산 봉우리 하늘을 찌를 듯 [三角高峯貫太清]
- 그 위에 오르면 북두칠성도 딸 수 있어 [登臨可摘斗牛星]
- 비구름을 불러일으키는 저 봉우리 [非徒岳岵興雲雨]
- 왕실을 만세토록 평안케 하리로다 [能使王家萬歲寧]

○ 仁壽峯 卽三角山之第一峯 四面純石削立一巖贅於峯背 故又名負兒岳 高勾麗東明王之子沸流溫祚南行至

漢山登負兒岳相可居之地卽此峯也

인수봉(仁壽峯): 삼각산(三角山)의 제일봉이다. 사면이 온통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져 있다. 그 중의 한 바위는 봉우리 뒷면이 불록 솟아 있어 마치 어린이를 업은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부아악(負兒岳)이라고도 한다. 고구려 동명왕(東明王)의 아들 비류(佛流)와 온조(溫祚)가 남쪽으로 내려와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살 만한 땅을 물색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 인수봉이다.

○白雲峯 在人壽峯西一名白雲臺卽山之最高處也

- 本朝鄭東溟斗卿詩 何物白雲臺 通天揮斗魁 居然五岳敵 自有二儀來 蒼翠陰相合 鴻濛氣不開 賦詩无傑句 還憶謫仙才
- 洪世泰詩 突兀雲臺峻 齊標露積雄 根蟠千地裂 勢與九天通 積氣生青靄 飛流掛白虹 山增或能上 只是借冷風
- 僧聖能詩 羸羸奇形幾萬重 雲中秀出碧芙蓉 神光永照黃金界 淑氣長留白玉峯 突兀岡巒含月色 幽深洞壑秘仙踪 清遊更欲登高頂 俯瞰滄溟一快胸

백운봉(白雲峯): 인수봉 서쪽에 있다. 백운대(白雲臺)라고도 하는데, 삼각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 조선시대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의 시

백운대의 모습은 어떠하고? [何物白雲臺]

하늘을 뚫고 북두칠성을 휘두르네 [通天揮斗魁]

당당히 솟아올라 오악(五岳)과 겨루니 [居然五岳敵]

천지(天地)·음양(陰陽)의 두 세계를 지니고 있네 [自有二儀來]

울창하고 무성한 그늘이 백운대와 조화를 이루어 [蒼翠陰相合]

물안개에 가리운 채 혼돈하고 홍몽(鴻濛)한 모습만 어렴풋하네 [鴻濛氣不開]

시로 이 장관을 묘사할 길 없으나 [賦詩无傑句]

적선(謫仙: 이태백)의 시재(詩才)가 아쉽기만 하여라 [還憶謫仙才]

□ 홍세태(洪世泰)의 시

우뚝 솟은 백운봉의 험준한 그 모습 [突兀雲臺峻]

노적봉과 더불어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한 자세를 자랑하네 [齊標露積雄]

그 산의 뿌리가 땅을 틀어 온 땅이 갈라지니 [根蟠千地裂]

그 기세는 하늘에 닿을 듯하여라 [勢與九天通]

넘치는 기운은 푸른 아지랑이를 토해내고 [積氣生靄靄]

쏟아지는 폭포수는 흰빛 무지개를 드리웠네 [飛流掛白虹]

산승이야 저 산을 오를 수 있으면만 [山增或能上]

맑은 공기 마시면서 몇 번은 쉬어야 오를 수 있겠지 [只是借冷風]

□ 승(僧) 성능(聖能)의 시

우뚝우뚝 치솟은 기이한 모양의 백운봉 몇 만 년이나 되었는가? [矗矗奇形幾萬重]
 마치 푸른 부용이 치솟아 오른 듯하네 [雲中秀出碧芙蓉]
 신이(神異)한 광채는 황금계(黃金界)를 영원히 비추고 [神光永照黃金界]
 맑은 정기는 백옥봉 주위에 머물러 있네 [淑氣長留白玉峯]
 우뚝한 산봉우리는 달빛에 잠겨 있고 [突兀岡巒含月色]
 그윽하고 깊은 산 골짜엔 신선의 발자취가 서리어 있네 [幽深洞壑秘仙踪]
 청유객(淸遊客)들은 더 높은 봉우리로 발돋움을 하는데 [淸遊更欲登高頂]
 산청에서 발아래를 내려다보니 창명한 세계가 가슴을 탁 트이게 하네 [俯瞰滄溟一快胸]

○萬景峯 在白雲峯南 峻拔奇壯與仁壽峯爭雄

만경봉(萬景峯): 백운봉(白雲峯) 남쪽에 있다. 험준하고 빼어난 기이함으로 인수봉과 자웅을 겨룬다.

○露積峯 在萬景峯西 湧峙磅礴形如露積故名重興洞古石城在此

- 本朝李月沙廷龜云 登露積峯最高頂而望之西南大海遠自青齊浮雲落日 銀界茫茫目力有盡而望勢無際所可記者 水落峩嵯冠岳淸溪天磨松嶽聖居 諸山累累如丘垤月溪峽圻警波西注漢水一帶如拖水練灣回屈曲環繞王都遙峯亂嶼隱見雲際都城百萬家逼近不能見但見脚底炊煙粧點一活畫雲隙露一螺髻知是終南山也
- 鄭東溟斗卿詩 步入重興洞 回看露積峯 巖奇皆夏禹 草異漏神農 瀑洙流千尺 雲陰結萬重 儵然出塵外 仙侶倘相逢

노적봉(露積峯): 만경봉(萬景峯) 서쪽에 있다. 솟아오를 듯한 산봉우리와 뾰족뾰족한 바위의 형상이 노적가리와 같으므로 노적봉이라 부른다. 중흥동(重興洞)의 옛 석성(石城)이 여기에 있다.

□ 조선시대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가 이렇게 말하였다.

“노적봉 정상에 올라 서남쪽으로 대해(大海)를 바라보니 저 멀리 보이는 푸르고 가지런한 뜬 구름, 그리고 저물어 가는 낙조에 반사되는 은빛바다는 끝없이 아득하기만 하다. 또 한 가지 기록할 만한 것은 수락산(水落山)·아차산(峨嵯山)·관악산(冠岳山)·청계산(淸溪山)·천마산(天磨山)·송악산(松嶽山)·성거산(聖居山)의 여러 산들에 관해서이다. 작은 언덕들이 겹겹이 둘러싸이고, 달빛에 반짝이는 시냇물은 좁은 골짜기에 서 출렁이는 놀란 파도가 되어 서쪽으로 흐른다. 띠처럼 기다란 한수(漢水)는 마치 얼음처럼 희게 표백되어 굽이굽이 흘러서 왕도(王都)를 돌아 흐른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과 점점이 어우러진 도서(島嶼)들은 구름 사이에서 들쭉날쭉 출몰을 거듭한다. 도성(者城)의 백만 가옥이 눈앞에 바짝 다가선 듯하면서도 그 모습은 뚜렷이 볼 수가 없고, 다만 저 아래에서 밥 짓는 연기만 한 폭의 그림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문득 물안개 구름 사이로 소라 모양을 한 상투 같은 것이 드러나니, 이것이 바로 종남산(終南山)임을 알 수가 있었다.”

□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의 시

중흥동으로 걸어 들어가 [步入重興洞]

노적봉을 되돌아보니 [回看露積峯]

기암괴석의 기이한 형상은 하(夏) 나라 우왕과 같고 [巖奇皆夏禹]
 기화요초(琪花瑤草)는 신농씨(神農氏)가 떨어뜨린 것 같구나 [草異漏神農]
 폭포수 물보라는 천 길의 낭떠러지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瀑洙流千尺]
 구름 그림자는 만 겹으로 쌓여 있네 [雲陰結萬重]
 홀연히 속세를 벗어나니 [倏然出塵外]
 신선들이 노닐다가 나를 반겨 맞는구나 [仙侶倘相逢]

○龍巖峯 在萬景峯南

용암봉(龍巖峯): 만경봉 남쪽에 있다.

○日出峯 在龍巖峯前

일출봉(日出峯): 용암봉 앞에 있다.

○月出峯 如日出峯並峙

월출봉(月出峯): 일출봉과 같은 산에 있다.

○起龍峯 在月出峯前

기룡봉(起龍峯): 월출봉 앞에 있다.

○盤龍峯 在起龍峯傍

반룡봉(盤龍峯): 기룡봉 옆에 있다.

○柴丹峯 在盤龍峯南上有東將臺下有 御 需齋

시단봉(柴丹峯): 반룡봉 남쪽에 있다. 그 위에 동장대(東將臺)가 있고, 그 아래 어수재(御需齋)가 있다.

○德藏峯 在柴丹峯南 諸峯皆若環揖於此故名

덕장봉(德藏峯): 시단봉 남쪽에 있다. 온갖 봉우리가 모두 이 봉우리를 둘러싸고 읍(揖)하는 모습이라고 하여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福德峯 在德藏峯南 其形勢氣像與德藏相似故亦名

복덕봉(福德峯): 덕장봉 남쪽에 있다. 그 형세와 기상이 덕장봉과 비슷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釋迦峯 在東門外青藪洞上

석가봉(釋迦峯): 동문(東門) 밖 청수동(靑藪洞) 위에 있다.

○聖德峯 在釋迦峯西

성덕봉(聖德峯): 석가봉 서쪽에 있다.

○化龍峯 在聖德峯傍

화룡봉(化龍峯): 성덕봉 옆에 있다.

○潛龍峯 在化龍峯近西

잠룡봉(潛龍峯): 화룡봉 가까운 서쪽에 있다.

○普賢峯 在大西門外

보현봉(普賢峯): 대서문(大西門) 밖에 있다.

○文殊峯 在普賢峯西 峯下有文殊窟 窟中有甘泉鍊石像 文殊與五百羅漢

□本朝忠壯公南延年題名於窟中 戊申殉節後僧普心刻之 今大司成李天輔爲之記

문수봉(文殊峯): 보현봉 서쪽에 있다. 문수봉 아래는 문수굴(文殊窟)이 있고, 굴 가운데에는 감천(甘泉)과 돌로 된 문수보살상(文殊菩薩像)과 오백나한상(五百羅漢像)이 있다.

□조선시대 충장공(忠壯公) 남연년(南延年)의 제명(題名)이 굴 안에 있다. 무신(戊申, 1728)에 일어난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순절한 뒤 승(僧) 보심(普心)이 이를 새기고, 지금 대사성(大司成) 이천보(李天輔)가 이를 기록하였다.

○蘿月峯 在歡喜峯南

나월봉(蘿月峯): 환희봉 남쪽에 있다.

○甌炊峯 在蘿月峯西

증취봉(甌炊峯): 나월봉 서쪽에 있다.

○龍穴峯 在甌炊峯西

용혈봉(龍穴峯): 증취봉 서쪽에 있다.

○龍出峯 在龍穴峯西

용출봉(龍出峯): 용혈봉 서쪽에 있다.

○彌勒峯 在龍出峯西

미륵봉(彌勒峯): 용출봉 서쪽에 있다.

○元曉峯 在水口上有元曉庵

원효봉(元曉峯): 수구(水口) 위에 있으며 원효암(元曉庵)이 있다.

○靈鷲峯 在元曉峯上

영취봉(靈鷲峯): 원효봉 위에 있다.

○侍者峯 在白雲臺下登臨可盡北漢之一城形勢

시자봉(侍者峯): 백운대 아래에 있는데 이 봉우리에 오르면 북한산성의 형세를 모두 알 수 있다.

○麒麟峯 在露積峯下

기린봉(麒麟峯): 노적봉 아래에 있다.

○將軍峯 在重興寺西高麗崔瑩所留故名云

장군봉(將軍峯): 중흥사 서쪽에 있다. 고려시대 최영(崔瑩)이 머무른 곳이라 이 이름이 붙었다.

○登片峯 在將軍峯之上重興寺之後

등편봉(登片峯): 장군봉 위 중흥사 뒤에 있다.

○龜巖峯 在東將臺下

구암봉(龜巖峯): 동장대 아래에 있다.

○上元峯 在文殊峯北

상원봉(上元峯): 문수봉 북쪽에 있다.

○鶴巖峯 在南將臺北

휴암봉(鶴巖峯): 남장대 북쪽에 있다.

○天龍岡 自元曉峯連絡而來與登片峯對峙

천룡강(天龍岡): 원효봉에서 이어져 내려와 등편봉과 대치하고 있다.

○臥龍岡 起脉於甌峯與將軍峯對峙上有興龍池

와룡강(臥龍岡): 그 맥이 증봉에서 시작하여 장군봉과 대치하고 있으며 그 뒤는 흥룡지(興龍池)가 있다.

○走馬岡 與臥龍岡分起向露積峯

주마강(走馬岡): 와룡강으로부터 갈라져 노적봉(露積峯)으로 향하고 있다.

○義相臺 在彌勒峯下 新羅義相祖師住錫 義相始至興州之太白山創浮石寺及移住于此山也 卓錫於舊居室前 仍以開花生葉卽所謂仙飛花.

의상대(義相臺): 미륵봉 아래에 있다. 신라의 의상조사(義相祖師)가 이곳에 주석하였다. 의상은 처음 흥주(興州) 태백산(太白山)에 이르러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이 산에 와서 머물렀다. 옛날 거실 앞에 탁자가 있고, 그 앞의 나무에 꽃이 피고, 잎이 돌아났는데 그것을 선비화(仙飛花)라고 부른다.

○元曉臺 在義湘臺北水口上 義湘弟元曉住錫處

□僧聖能詩 玉水瓊林密不開 琉璃淨界絕塵埃 峩峩雪色峯千疊 激激雷聲水萬回 觀靜高僧枯更寂 學飛雛鶴去還來 超然是處尋眞客 薄暮登臨元曉臺

원효대(元曉臺): 의상대 북쪽 수구(水口) 위쪽에 있다. 의상이 존경하는 원효(元曉)가 머물던 곳이다.

□승(曾) 성능(聖能)의 시

구슬같이 아래다운 수림(樹林)은 뽁뽁이 우거지고 [玉樹瓊林密不開]

유리처럼 맑은 세계는 속세와 격절되었네 [琉璃淨界絕塵埃]

높고 험한 설색(雪色)의 산봉우리는 천 겹을 이루고 [峨峨雪色峯千疊]

벼성벽력같이 힘차게 소리치며 흐르는 물은 만 굽이를 감돌아 흐른다 [激激雷聲水萬回]

고요한 사색에 잠긴 고승의 모습은 수척하고 적막하기만 한데 [觀靜高僧枯更寂]

나는 것을 배우는 어린 학들은 무심코 오락가락 하구나 [學飛雛鶴去還來]
속세와 초연히 떨어진 이곳에 진객(眞客)이 찾아와 [超然是處尋眞客]
어스름 황혼녘에 원효대에 오르노라 [薄暮登臨元曉臺]

○太古臺 在龜巖峯下

태고대(太古臺): 구암봉(龜巖峯) 아래에 있다.

○逍遙臺 在東將臺傍

소요대(逍遙臺): 동장대(東將臺) 옆에 있다.

○法王臺 在普國寺南

법왕대(法王臺): 보국사(輔國寺) 남쪽에 있다.

○遊仙臺 在扶旺寺前

유선대(遊仙臺): 부왕사(扶王寺) 앞에 있다.

○曲龍臺 在普光寺左腋

곡룡대(曲龍臺): 보광사(普光寺) 왼쪽 골짜기에 있다.

○瑤草臺 在元曉臺下

요초대(瑤草臺): 원효대 아래에 있다.

○長春洞 自水口至白雲橋下

장춘동(長春洞): 수구(水口)로부터 백운교(白雲橋) 아래까지이다.

○玉流洞 自白雲橋至萬景峯下

옥류동(玉流洞): 백운교로부터 만경봉(萬景峯) 아래까지이다.

○清溪洞 自白雲橋上至靑雲橋下

청계동(清溪洞): 백운교(白雲橋) 위에서부터 청운교(靑雲橋) 아래까지이다.

○露積洞 在露積峯下

노적동(露積洞): 노적봉 아래에 있다.

○靈泉洞 在露積峯下其上有靈泉窟其下有降仙橋

영천동(靈泉洞): 노적봉 아래에 있는데, 그 위로는 영천굴(靈果窟)이 있고 아래에는 강선교(降仙橋)가 있다.

○隱仙洞 在重興洞上萬景峯下

은선동(隱仙洞): 중흥동(重興洞) 위, 만경봉(萬景峯) 아래에 있다.

○龍溪洞 在龍巖洞口日出峯下

용계동(龍溪洞): 용암동(龍巖洞) 입구, 일출봉(日出峯) 아래에 있다.

○叫龍洞 自重興洞口上至武學堂下

규룡동(叫龍洞): 중흥동(重興洞) 입구 위에서부터 무학당(武學堂) 아래까지 이른다.

○潛龍洞 在上元峯下

잠룡동(潛龍洞): 상원봉(上元峯) 아래쪽에 있다.

○龍遊洞 在甌峯下

용류동(龍流洞): 증봉(甌峯) 아래에 있다.

○白雲洞 在將軍峯下洞門刻白雲洞門四字

백운동(白雲洞): 장군봉(將軍峯) 아래에 있으며 문(門)에 백운동문(白雲洞門)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 놓았다.

○紫霞洞 在仙遊臺下

자하동(紫霞洞): 선유대(仙遊臺) 아래쪽에 있다.

○女妓潭 在喚仙橋下降仙橋上

여기담(女妓潭): 환선교(喚仙橋) 아래쪽, 강선교(降仙橋) 위쪽에 있다.

○盤龍潭 在沆瀣樓下

반룡담(盤龍潭): 항해루(沆瀣樓) 아래쪽에 있다.

○月印潭 在水口上

월인담(月印潭): 수구(水口) 위쪽에 있다.

○國寧瀑 在龍血峯洞口

국녕폭(國寧瀑): 용혈봉(龍血峯) 골짜기 입구에 있다.

○祥雲瀑 在白雲峯下

상운폭(祥雲瀑): 백운봉(白雲峯) 아래쪽에 있다.

◎ 성지(城池)

○城周七千六百二十步 作里二十一里六十步內 自水門北邊至龍巖二千二百九十二步 訓練都監所築 自龍巖南邊至普賢峯二千八百二十一步 禁衛營所築 自水門南邊至普賢峯二千五百七步 御營廳所築
 □平地體城高築十四尺或十二尺 山上體城高築十尺半築六尺或七尺或只築女牆高四尺廣三尺摠高築者二千七百四十六步半築者 二千九百六步半半築者五百十一步 只築女牆者一千四百五十七步

산성의 둘레 7,620보(步): 리(里) 수로 계산하면 21리 60보 이내이다. 수문(水門) 북쪽으로부터 용암(龍巖)까지 2,292보(步)는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축성하였다. 용암 남쪽으로부터 보현봉(普賢峯)까지의 2,821보(步)는 금위영(禁衛營)에서 축성하였다. 수문(水門) 남쪽으로부터 보현봉까지 2,570보(步)는 어영청(御營廳)에서 축성하였다.

□평지(平地)의 체성(體城) 높이는 14척(尺)으로 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형에 따라서 12척으로 쌓기도 하였다. 산 위의 체성(體城)의 높이는 10척으로 하였으며 반축(半築)의 경우에는 6척, 혹은 7척으로 쌓기도 하였고, 어떤 곳은 여장(女牆)만 쌓기도 하였는데 그 높이는 4척, 넓이가 3척이다. 고축(高築)의 경우 총 길이가 2,746보이고, 반축(半築)의 경우는 총 길이가 2,906보이며, 반반축(半半築)의 총 길이는 511보이다. 그리고 여장(女牆)만을 쌓은 길이는 1,457보이다.

○門十四 北門 大東門 大西門 大成門 中城門 此五門 高十一尺或十三尺 廣十三四尺 作虹蜺設譙樓 小東門 小南門 亦作虹蜺 西暗門 白雲峯暗門 龍巖峯暗門 東暗門 靑水洞暗門 扶旺洞暗門 袞娒堂暗門 以上九門 高低不一 又有水門高十六尺 廣五十尺

□ 中城門在元曉義相兩峯之間爲西邊水口低下淺露也

문 14개: 북문(北門)·대동문(大東門)·대서문(大西門)·대성문(大成門)·중성문(中城門)의 다섯 개 문은 높이가 11~13척, 넓이가 13~14척으로 홍예(虹蜺)로 만들어졌고, 초루(譙樓)가 설치되어 있다. 소동문(小東門)·소남문(小南門)은 역시 홍예로 만들어졌고, 서암문(西暗門)·백운봉암문(白雲峯暗門)·용암봉암문(龍巖峯暗門)·동암문(東暗門)·청수동암문(靑水洞暗門)·부왕동암문(扶旺洞暗門)·가사당암문(袞娑堂暗門) 등 9개의 문은 높고 낮음이 일정하지 않다. 또 수문이 있는데 높이가 16척이고 넓이는 50척이다.

□ 中성문(中城門)은 원효봉(元曉峯)과 의상봉(義相峯) 사이에 있는데, 서쪽 수구(水口) 바닥에 얇은 물이 흐른다.

○將臺三 東將臺 在奉聖巖後峯 南將臺 在羅漢峯東北 北將臺 在中城門西北

□ 洪世泰東將臺詩 憶奉鸞輿上此臺 千官劍佩查徘徊 山河本爲王居設 城壘還憑佛力開 天語似聞嗟絕險 廟謨尤急問奇才 只今劍閣銘誰獻 獨有微臣浪跡來

장대(將臺) 3개소: 동장대(東將臺)는 봉성암(奉聖庵) 후봉(後峯)에 있다. 남장대(南將臺)는 나한봉(羅漢峯) 동북쪽에 있다. 북장대(北將臺)는 중성문(中城門) 서북쪽에 있다.

□ 洪世泰(洪世泰)의 동장대 시(詩)

왕을 모시고 동장대에 올랐던 지난날이 생각나네 [憶奉鸞輿上此臺]

문무백관들은 칼을 차고 줄지어 늘어섰지 [千官劍佩查徘徊]

산하는 본시 왕의 거처로 마련된 것 [山河本爲王居設]

성루는 곧 부처님의 힘을 빌어 이룩된 것일세 [城壘還憑佛力開]

이 절경과 험준함을 감탄하던 왕의 말씀이 귀에 쟁쟁한데 [天語似聞嗟絕險]

그때 나라를 지키는 방책이 시급하여 인재를 급히 찾으셨네 [願謨尤急問奇才]

그 누가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이 방책을 검각(劍閣)에 새겨 왕께 바칠꼬 [只今劍閣銘誰獻]

이 미천한 신하 발길이 여기에 이르렀노라 [獨有微臣浪跡來]

○城廊一百四十三 四十二訓練都監 四十一御營廳 六十禁衛營

성랑(城廊) 143개소: 42개소를 훈련도감(訓練都監)이 관리하고, 41개소는 어영청(御營廳)이, 60개소는 금위영(禁衛營)이 관리한다.

○池二十六 十一訓練都監 十二御營廳 三禁衛營

못[池] 26개소: 11개소를 훈련도감(訓練都監), 12개소는 어영청(御營廳), 3개소는 금위영(禁衛營)이 관리한다.

○井九十九

우물[井] 99개소.

◎ 사실(事實)

○孝廟己亥有 密勿之教 孝廟諭文正公宋時烈曰 凡被兵之國外方 雖蕩殘根本堅固故終不至敗亡 我國則少有兵亂都城先潰公私蓄積皆付敵人甚可歎也何 祖宗規模如是疎闊也 嘗欲修築北漢城又塞造紙署洞口以爲臨亂 移御之所公私人物皆保無事而敵人必欲來爭是敵人送死之地然此時後民爲難故不敢生意耳北漢築城之議實原於此

효종조 기해년(己亥年: 1659)에 밀물지교(密勿之教)가 있었다. 효종이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과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개 외침을 받는 나라는 변방의 성곽이 견고해야 끝까지 패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은 병란(兵亂)만 일어나도 먼저 도성(都城)이 무너져 공사(公私) 간의 비축물자가 모조리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니 참으로 한스러운 일이다. 어찌하여 조정의 정책이 이처럼 엉성할 수가 있는가? 일찍이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또한 조지서(造紙署) 입구를 막아 국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왕의 피난처로 삼았으면 공사인물(公私人物)을 모두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며, 필시 적이 쳐들어와 싸우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곳은 적의 사지(死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북한산성을 축조할 백성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감히 북한산성을 축조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북한산성을 축조하자는 논의는 실로 여기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다.

○肅廟庚寅命將臣往審築城便宜 在 肅廟二十八年壬午右議政申琬陳萬言筭其論城池極言江都南漢決非緩急可恃之地 仍言壬辰去邪之時 朝臣多請守都城而以城既太闊 且多所忌故不見用臣曾見蕩春臺舊址實合設險四面壁立其最低者彰義門百步闊耳 若於北岳之右仁王之左附築雉城壓賊路以遏衝突雖有萬衆莫敢誰何水滙蕩春臺下不患無水而預置倉舍三江倉穀運入積置彼雖百萬吾何畏哉 築城之議非今創始而朝多浮議尙今空棄可勝惜哉 上有熟講之教其後又登 筵陳達有先審其址之 命審訖進地圖又詳陳形便 上下詢諸臣諸臣之見皆以爲便判書李濡引 太宗朝設六鎮 仁祖朝築南漢專委於金宗瑞李曙故事以戒之判書金昌集李寅燁大將李基夏亦以爲便好而以彼人詰責之慮難之 上命更加商度癸未又連有 俯詢諸議可否叅半判府事尹趾善陳筭請更加詳確申琬又上筭爭之甲申大將尹就商李基夏承 命審都城形勢圖形以進有都城修築之 命至是北脊以海賊爲慮中外頗繹騷 上回邊臣權小省狀啓詢于廟堂 右議政金昌集行兵曹判書閔鎮厚言我國有所拘碍不敢修築城池 今宜因咨文中語憑藉措辭於回咨是年十月 命訓練大將李基夏御營大將金錫行往審弘福北漢築城形便基夏歸奏其論北漢曰 臣出去之日由北漢還歸之日由西道遍見山之形勢東西兩邊絕險無比而仁壽峯白雲臺萬景臺三峯爲是爲三角山屹立于後稍西曰露積峯下有重興寺而萬景峯東轉逶迤爲釋迦峯普賢文殊等峯文殊展翼爲兄弟兩峯又南爲狗蹲白岳山而自文殊峯一枝轉西爲七星峯七星出兩枝落爲羅漢峯穴望義相諸峯至重興水口一枝西走爲僧迦峯香林寺後峯白雲峯西轉爲靈鷲元曉兩峯至重興水口而止四面諸峯鉄壁如削自成城郭人難接足眞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者也 故相臣李德馨文集中雖曰主山後路到白雲而斷問于僧人則仁壽白雲兩峯之間有一鳥道傳命可通 其他東西南三方擔載往來雖未可爲而行步則不難云矣 臣之入重興寺也路由水口有石門舊址 卽所謂西門也 城磚崩圯尙有石築基址而進入內城又有城門 此則距寺

僅數百步許若稍加修治亦可以通牛馬任載而城基內山谷之間 處處有水雖大軍留屯似無不足之患而山上柘木古甚茂盛柘虫之後雖不如前深峻處猶頗長養比諸南漢似有勝焉 都城不遠之地有此天險處棄置 誠可惜第局勢殊不寬敞入無可居處惟重興寺上邊 文殊寺之東曹溪寺之西 左右洞壑地勢少平稍有土膚不至束狹似可以居也 十二月又進山圖因以指點曰此自弘福而落爲道峯自道峯而入爲北漢白雲普賢諸峯 四面壁立 雖飛鳥不能直上形勢則實爲天險之地而但狹隘恐難容衆矣 上曰與南漢何如基夏曰險阻則非南漢比矣 上曰頃聞閔鎮厚所達若並築外洞則雖畿內之民可以容入云周回幾何耶 基夏曰若包入外洞而築之則可以容衆而畿內之民似難盡入矣 領議政徐宗泰曰包築內外則不爲小矣 錫行曰臣往見其形勢果是絕險之地 臣雖無見識意以爲決不可棄之地矣 適見故相臣李德馨書啓則以爲都城至近之地有如此形勢而棄置可惜德馨即 宣廟朝名臣身經患難而其言如此尤可信矣 蓋欲守都城則北漢不可不築欲棄都城則不可全賴於北漢矣 基夏曰都城根本之地先築都城爲堅守之計此則從容完築與都城爲表裏相應之地似好輕棄都城以北漢爲駐蹕之所未知其可也 昌集曰都城 宗社人民之所在固不可棄去守成之言大意則是而以地形觀之多有虛疎之處 聖上亦以闢大爲慮誠如下教故曾前議築之時臣則以難守之意與人酬酢矣 今此北漢雖曰諸議之參差第觀形勢則似爲便好弘福規模窄狹而功力浩大北漢則非但便近於都城所築之處不多比築弘福亦多省費據險設築似爲得力矣 上曰今此北漢之議築適值北谷出來之後有如鳥飛梨落人或疑其爲海寇計而予意則據險設築爲將來深遠之慮不但爲海寇矣 且沿邊防守實爲根本固守邊境不以賊遺君父爲上策而如或失守將何以處之耶都城 宗社所在堅守之議誠是而周回闢大欲守之議非萬全之道且壬辰西狩只以 皇朝爲恃而以今思之龍灣播遷時事實多有凶極者 況以今日之人心尤無離都遠去之勢亦無可恃以往之處 今此北漢距都城咫尺糧米向器械雖不別爲措置都城所在可以輸去雖以狹窄爲慮 閔鎮厚以爲外洞若並築則足以容入圻民終爲棄置實爲可惜予意則如此矣 宗泰曰閔鎮厚可容圻民之說似過而都城之民或可幾盡容入矣 是年判府事李濡陳筭論城池 其略曰先正臣宋時烈遺疏中錄進 聖祖密勿之教其疏上於甲戌夏間 聖批有 聖祖宏規遠謨度越千古其在予繼述之心欽翫莊誦等語矣 竊伏惟念 聖祖潛邸時必躬臨北山深察地形慨然於都城先潰之患有意於據險阻固根本保國保民實非偶然而發此 教也聿追當日未就之志以盡繼述之道者豈非我 殿下今日之責乎 修築北漢舊城又塞造紙署洞口以爲臨亂移 御之所一如 聖祖所論則表裏重城便作金湯之固既無窺峯又不涉津比之 南漢不啻倍勝國家萬全之計孰有過於此者哉

숙종조 경인년(庚寅年: 1710)에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북한산성 축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하였다.

숙종 28년(1702) 임오(壬午)에 우의정 신완(申玩)이 왕에게 만언차(萬言筭)를 올려 성지(城池) 문제를 논하면서 강도(江都)와 남한(南漢)은 국가가 위급할 때에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진왜란 시 수도를 버리고 몽진할 때 많은 신하들이 도성(都城)을 지킬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성은 너무 넓고 또한 취약한 곳이 많았으므로 끝내 도성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신(臣)이 일찍이 탕춘대(蕩春臺)의 옛터를 살펴보았는데 그곳은 참으로 성지(城池)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면이 우뚝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가장 낮은 곳은 창의문(彰義門)이 있는 백여 보 정도의 넓은 곳으로 만일 북악산 오른쪽과 인왕산 왼쪽에 붙여서 치성(雉城)을 쌓아 적의 접근로를 차단하고 사면에 대비한다면 만 명의 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탕춘대(蕩春臺) 아래로는 물이 흐르고 있어서 물의 부족을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미리 창고를 짓고 삼강창(三江倉)의 곡식을 운반하여 쌓아 두면 적군 백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축성을 하자는 논의가 이제 처음 시작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논의가 분분하여 아직껏 버려두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하기 이를 데 없습

니다.”

이에 왕이 신중히 그 대책을 강구해보라는 하교를 하였으며, 그 후에 경연(經筵)에서 다시 이 문제를 아뢰자 먼저 그 기지(基址)를 답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지 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축성에 대한 의견을 하문하였는데, 이 때 신하들 모두 축성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판서(判書) 이유(李濡)는 태종조(太宗朝)에 육진(六鎭)을 설치하고 인조조(仁祖朝)에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축조할 때, 전적으로 김종서(金宗瑞)와 이서(李曙)에게 이 일을 위임했던 고사에 따라 일을 성사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판서 김창집(金昌集), 이인엽(李寅燁), 대장(大將) 이기하(李基夏)도 또한 축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힐책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선뜻 견해를 밝히기를 꺼려하였다. 이에 왕이 다시 상의하라고 하명하였다.

숙종 29년(1703) 계미(癸未)에 여러 신하들에게 또 다시 축성에 대하여 하문하니 가부(可否)가 반반(半半)이었다. 판부사(判府事) 윤지선(尹趾善)이 상소를 올려 다시 상세하고 확실하게 결정할 것을 간청하였다. 신완(申琮)도 상소를 올려 이에 동조하였다.

숙종 30년(1704) 갑신(甲申)에 대장(大將) 윤취상(尹就商)과 이기하(李基夏)가 왕명을 받들어 도성(都城)의 형세를 답사하고 도형(圖形)을 올리자, 왕께서는 도성 수축을 하명하였다. 이때 청 나라로부터 해적(海賊: 일본)이 내침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자문(咨文)이 오자 중외(中外)의 민심이 크게 소란스러워졌다.

이때 왕이 말하였다. “변방 신하 권성(權備)의 장계(狀啓)에 대하여 묘당(廟堂)에 자문(諮問)을 구했더니 우의정 김창집(金昌集), 행병조판서(行兵曹判書) 민진후(閔鎭厚)는 ‘우리나라는 청 나라의 간섭으로 구애(狗碍) 받는 바가 있어 감히 성지(城池)를 수축할 수 없는데 때마침 지금 이러한 자문(咨文)이 왔으니 이를 병자하여 축성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어 회자(回諮)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 10월에 훈련대장 이기하(李基夏), 어영대장 김석연(金錫衍)에게 홍복산(弘福山)과 북한산(北漢山)을 답사하여 산성 축조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명하였다. 이기하가 돌아와서 북한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신(臣)이 북한산으로 갈 때에는 북한산을 거쳐서 갔고, 돌아올 때에는 서도(西道)를 거치면서 북한산의 형세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동쪽·서쪽·북쪽은 험준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인수봉(仁壽峯)·백운대(白雲臺)·만경대(萬景臺)의 세 봉우리가 바로 삼각산(三角山)으로 깎아 세운 듯이 뒤에 우뚝 솟아있으며, 약간 서쪽으로 있는 봉우리가 노적봉(露積峯)인데 그 아래로는 중흥사(重興寺)가 있습니다. 만경봉(萬景峯)은 동쪽으로 구불구불 뻗어 내려가다가 석가현(釋迦峴)이 되는데 여기에는 보현봉(普賢峯)·문수봉(文殊峯) 등이 있습니다. 문수봉은 나래를 퍼듯이 형제양봉(兄弟兩峯)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우리가 남쪽으로 뻗어 도사려 앉아 백악산(白岳山)을 이루었고, 문수봉에서 한 지맥이 서쪽으로 뻗어 칠성봉(七星峯)이 되었고, 칠성봉에서 두 지맥이 뻗어 나가 딱 떨어져서 나한봉(羅漢峯)·증봉(甕峯)·대망봉(大望峯)·의상봉(義相峯) 등 여러 봉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맥이 중흥동(重興洞) 수구(水口)에 이르러 한 지맥이 서쪽으로 달려 나가 승가봉(僧迦峯)이 되었습니다. 향림사(香林寺) 뒤의 봉우리를 백운봉(白雲峯)이라 하는 승가봉(僧迦峯) 맥이 서쪽으로 뻗어 영취봉(靈鷲峯)과 원효봉(元曉峯)의 두 봉우리를 이루고, 이 두 봉은 중흥동 수구 서쪽에 이르러서 그쳤습니다. 사면(四面)의 여러 봉우리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되어있어 산 자체가 성곽(城郭)을 이루므로 사람이 발을 붙이기 어려우니, 이는 실로 ‘한 사람이 관문을 지켜도 1만 사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형국입니다. 고(故) 상신(相臣) 이덕형(李德馨)은 그 문집(文集)에서 ‘주산(主山)의 뒷길은 백운대(白雲臺)에서 끊어진다.’고 했으나, 승려에게 물은 즉, ‘인수봉(仁壽峯)과 백운봉(白雲峯) 사이에 아주 험하고 좁은 길이 하나 있는데 전령(傳令)이나 겨우 통할 수 있고, 그 밖의 동·서·남 세 방향은 짐을 지고 통행할 수 없으나 행보(行步)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중흥사(重興寺)로 들어가는데 그 길을 수구(水口)로 따라가면 석문(石門)의 옛터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서문(西門)입니다. 성벽(城壁)은 무너졌으나 아직도 석축(石築)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내성(內城)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또 성문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찰에서 거리가 겨우 수백 보 정도 떨어져 있어 길을 조금만 더 보수하면 우마가 짐을 싣고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의 산골짜기마다 물이 있어서 대군이 주둔하더라도 물이 부족할 염려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산 위에 소나무가 대단히 무성하였는데, 현재는 소나무가 짙게 뺏아서 우거진 정도가 남한산성만은 못하나 성곽의 길이와 너비는 남한산성보다 나은 듯하여 수호를 위해서도 그대로 둘 수 없는 곳이니 버려두기 매우 아깝습니다. 북한산의 형세는 넓지 못하여 적군이 발붙이기는 어려우나 오직 중흥사(重興寺) 위쪽과 문수사(文殊寺)의 동쪽, 조계사(曹溪寺)의 서쪽 좌우 골짜기는 지세가 약간 평탄하여 옥견(玉肩)이 피난하기에는 어려우나(군사가) 거처할 수는 있습니다.”

12월에 다시 천달산(天達山) 지도를 가리키면서 말하였다. “이곳은 홍복산(弘福山)에서 뚝 떨어져서 도봉산(道峯山)이 되었고, 도봉산으로부터 뺏어 들어와 북한산(北漢山)·백운봉(白雲峯)·보현봉(普賢峯) 등 여러 봉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면이 깎아 세운 듯한 험준한 벼랑이어서 비록 나는 새라도 곧바로 올라갈 수 없는 형세이니 참으로 천연적인 요새지입니다. 다만 지형이 좁아서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 형세가 남한산성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이기하가 말하였다.

“지세가 험조(險阻)하다는 면에서는 남한산성을 이곳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왕이 말하였다.

“근자에 민진후(閔鎭厚)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만일 외동(外洞)까지 포함하여 축성을 한다면 기내(畿內)의 백성들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주위의 넓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기하가 말하였다.

“만일 외동(外洞)까지 포함시켜서 축성한다면 대중을 수용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기내(畿內)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말하였다.

“산의 내외(內外) 골짜기를 모두 포함하여 축성하면 그 넓이가 그다지 적지 않습니다.”

김석연(金錫衍)이 말하였다.

“신(臣)이 북한산에 가서 그 형세를 보니 과연 더할 나위 없이 험한 곳이었습니다. 신은 비록 견식(見識)이 보잘 것 없으나, 결코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고(故) 상신(相臣) 이덕형(李德馨)의 서계(書啓)를 보니 ‘도성(都城)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은 형세를 갖춘 곳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버려두기는 아깝다.’ 하였습니다. 이덕형은 선조(宣祖) 때의 명신(名臣)이며, 직접 환란(患亂)을 경험한 분으로서 그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이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도성을 지키려 한다면 반드시 북한산에 축성을 해야 할 것이고, 도성을 버리고서는 북한산성에만 의존해서 이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이기하가 말하였다.

“도성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곳이므로 먼저 도성을 쌓아서 이를 견고하게 지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차분하게 도성을 완축하고 북한산을 축성하여 안과 밖이 서로 형세를 호응하도록 하는 거점으로 삼는다면 좋을 것입니다. 경솔하게 도성을 버리고 북한산성을 왕의 거처로 삼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창집(金昌集)이 말하였다.

“도성은 종묘와 사직, 그리고 백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니 굳게 지켜서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성(守城)이라는 말의 대의(大意)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도성의 지형을 살펴보면 허소(虛疎)한 곳이 많습니다. 성상(聖上)께서도 또한 도성이 너무 넓어서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북한산성 축성문제를 의논하라는 하교를 내리신 것입니다. 전에 축성에 관하여 의논할 때에 신(臣)은 도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지금 북한산축성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나, 그 형세를 보면 축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복산(弘福山)은 규모가 협소하고 공력(功力)이 많이 들겠지만, 북한산(北漢山)은 도성 가까이 에 있을 뿐만 아니라 축성할 곳이 많지 않아 홍복산 축성에 비하여 비용이 절약되고, 험준한 곳을 이용하여 축성을 하므로 공력도 덜 들것 같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이번의 북한산 축성 논의는 때마침 청 나라에서 자문이 온 뒤의 일이므로,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되어서 사람들은 그것이 해구(海寇) 때문에 계획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겠지만 험한 곳을 의지해서 축성을 하자는 나의 뜻은 장래를 위한 심원(深遠)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지, 비단 해구(海寇)를 대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연변(沿邊)을 지키는 일은 실로 국방의 근본이 되는 일이므로 변경을 굳게 지켜 적으로부터 왕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성을 증축한다 할지라도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장차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도성(都城)은 종묘와 사직이 있는 곳이니 견고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논은 진실로 옳은 일이다. 그러나 주위가 너무 넓으니 그것만을 지키자는 의논도 완전한 계획은 아니다.

또 임진왜란 때 서쪽으로 피난한 것은 다만 명 나라만을 믿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용만(龍灣)에 피난 갔던 때의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망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더구나 오늘날 형편은 도성을 떠나 멀리 갈 처지도 못되거니와, 또한 믿고 의지해서 찾아갈 만한 곳도 없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북한산은 도성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으니 식량이나 무기를 별도로 조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성에 있는 것을 운반해 갈 수가 있다. 비록 좁다고 생각되지만 민진후(閔鎭厚)가 말한 바와 같이 외동(外洞)까지 포함하여 성(城)을 쌓으면 기민(圻民)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하니 이 북한산을 끝내 방치해 두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 나의 생각도 민진후의 생각과 같다.”

서종태(徐宗泰)가 말하였다.

“민진후가 기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말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다만 도성의 백성은 거의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에 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가 차자를 올려 성지(城池)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그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유소(遺疏) 중에 성조(聖祖)의 밀물지교(密勿之教)가 실려 있었습니다. 숙종 20년(1694) 갑술(甲戌) 여름에 이 상소가 올라가자 성상께서 비답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에 ‘성조의 크고 웅대한 계획은 천고(千古)에 뛰어난 것이니, 나는 그것을 이어받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공경하고, 익히고, 외우고 했다.’는 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성조께서는 즉위하기 전에 몸소 북한산에 올라 그 지형을 자세히 살피고, 임진왜란 당시에 도성이 먼저 무너졌던 사실을 한스럽게 여겨 험준한 이 북한산의 지형을 이용하여 국가의 근본이 되는 도성을 견고하게 지켜 나라와 백성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니, 이는 실로 우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교는 당시 선왕께서 이루지 못한 뜻을 따라 모두 계승하겠다는 것이니 어찌 오늘의 우리 전하께서 지켜야 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북한산의 옛 성을 다시 수축하고 조지서(造紙署) 동구(洞口)를 막아서 국난을 당하였을 때 당의 피난처로 삼아 한결같이 효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도성과 북한산성이 안팎으로 형세를 호응하여 금성탕지(金城湯池)를 만들 것

입니다. 이미 규봉(窺峰)도 없어질 것이며, 하교한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한산성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를 보전할 수 있는 만전지책(萬全之策)으로서 이보다 나은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辛卯二月始決築城之議 二月初五日承旨韓配周言臣於數年前以急築北漢之意對故判書李寅燁及戶曹判書金宇杭有酬酢語昨冬又及於辭疏厥後 聖明特下備忘至引漢照烈不忍棄民之事以北漢爲大計在廷諸臣宜奉承 聖意料理築城而今日四朔猶不能決今日國事實爲沓沓北漢之絕險不待臣言諸臣亦已目擊而上達今日急務固當不容他議急時築城若待朝議歸一則有同作舍路傍無時可成惟 聖明不謀於衆斷自宸衷(?) 無使大計遷就徐宗泰曰韓配周所達誠有意見而今日則臣等不得備員入侍待後日招原任大臣及諸宰更加審問後斷定宜矣 上曰謀之雖多決之欲獨時任原任大臣備局諸宰及將臣既皆往見更無詳察之事矣 易云王公設險以守其國孟子云鑿斯池也 築斯城也與斯民守之 詩云迨天之未陰雨撒彼桑土今此北漢乃溫祚舊都而實爲天險都城咫尺有此 天險之地若不及今修築則又待何時乎 請守都城之議非不好矣 而第周回闊大終不可守今此欲城北漢者 是與民同守之意也 前日則惟以水泉爲慮 今聞水泉亦多云險阻既如彼難得水泉又如如是甚足矣 若待廣聚而決定則事難成矣 決爲築城可也 宗泰曰此事重大特原任大臣諸宰入侍更爲下教何如 上曰原任既已往見不必更待後日矣 刑曹判書趙泰老略陳作事謀始之義 又曰議者以爲北漢既築都城亦可守都城既以闊大不可守則以何兵力並守兩處乎 且既築之後軍餉戎器須備置然後可以入守今國無三年之蓄糧餉未易措辦若移江都南漢之穀則有同毀東補西矣 若不儲軍餉雖築是城將焉用哉 副郊理洪致中曰趙泰老之言頗詳盡有糧餉然後可以守城雖金城湯池無食則不可守也 上曰如此之議誠爲泄泄也 都城闊大難守故前後儒生武臣之請 予皆不許矣 江都則海寇及水漸時非可恃之地 南漢則以涉津爲難此則距都城至近無異都城 故欲與民入守而人之所見如人面之不同 若必待諸議俱同然後作事則事無可成之日眞所謂待汝議論定時我已渡江者矣 定築之後設有未盡措置者猶可入守矣 今若一年二年無一定處則將何往乎 軍餉等事不過節目間事 且與遠地有異商量措置似不難矣 諸臣既退 上以御製詩一首書贈海昌都尉詩曰臨筵定計出深思更喜吾民與守之 昔日溫都斯地建今辰行殿此山治美哉 可比秦嶺險高矣 殊同蜀道危屹屹崇墉新堞壯海東第一果誰爲

신묘년(辛卯年: 1711) 2월에 비로소 북한산성을 축성하자는 의논이 결정되었다.

2월 초5일 승지(承旨) 한배주(韓配周)가 말하였다.

“신(臣)은 수년 전에 북한산의 축성이 시급하다는 뜻을 가지고 고(故) 판서(判書) 이인엽(李寅燁) 및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抗)과 논의한 바 있었으며, 작년 겨울에도 사직 상소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후 성상께서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리시며 한 나라 소열황제(昭烈皇帝: 유비)의 ‘차마 백성을 버릴 수는 없다.’는 말까지 인용하였습니다. 북한산성 축성사업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계획으로서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마땅히 성상의 뜻을 받들어 축성방도를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오늘의 국사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북한산의 험준함은 신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이미 가서 목격하고 성상께 보고한 바 있으니 이제는 진실로 다른 이론을 허용하지 말고 빨리 성을 쌓는 것이 오늘의 가장 급한 일입니다. 만일 조정의 의견이 통일될 때까지 기다리자면 이것은 마치 길가에 짐을 짓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되어 일을 매듭지을 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성상의 총명하신 판단으로 결정하시어 국가의 대계가 더 이상 천연(遷延)되지 않도록 하소서.”

서종태(徐宗泰)가 말하였다.

“한배주가 아뢰는 말은 진실로 깊은 뜻이 있으나 오늘은 신하들이 다 입시(入侍)하지 못하였으니 후일 원임 대신과 여러 재상들을 불러서 다시 자세히 물어본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왕이 말씀하셨다.

“일을 도모할 때에는 중지를 모아야 하나, 결단은 내가 할 것이다. 시임(時任)대신과 원임(原任)대신, 비변사의 모든 재상과 장신(將臣)들은 이미 다 현지에 가서 보았으니 다시 자세히 살펴볼 일은 없을 것이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왕공(王公)은 험준한 곳에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킨다.’고 하였으며, 『맹자(孟子)』는 ‘못을 파고 성을 쌓아 백성과 더불어 이를 지킨다.’고 하였다. 또 『시경(詩經)』에는 ‘하늘에서 곳은 비가 내리기 전에 저 뽕나무 뿌리의 껍질을 취하리라.’고 하였다. 오늘의 이 북한산은 바로 온조왕의 옛 도읍 지로서 실로 천연의 요새지인데 도성과 지척지간의 거리에 있다. 이러한 천연의 요새가 있는데도 만일 지금 축성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서 축성을 한단 말인가? 도성을 지키자는 의견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단지 그 주위가 너무 넓어서 끝까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산성을 쌓아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지키려는 것이다. 전일에는 생물이 염려되었으나 지금 들으니 물이 넉넉하다 한다. 험준하기가 이미 저와 같으며, 언기 어려운 물 또한 넉넉하다고 하니 나로서는 대단히 만족하다. 만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려 하면 성사되기가 어려울 것이니, 결단코 축성하는 것이 옳다.”

서종태가 말하였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니 원임대신(原任大臣)과 여러 재상들이 입시(入侍)하기를 기다렸다가 하교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왕이 말씀하셨다.

“원임대신들은 이미 현지에 가서 보았으니 다시 후일을 기다릴 것이 없다.”

형조판서 조태구(趙泰耆)가 이 일의 추진 동기를 간략히 설명하고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북한산성을 축조하고 나서도 도성 또한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만 도성이 너무 넓어서 지킬 수 없는데 무슨 병력으로 도성과 북한산성을 한꺼번에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을 축조한 후에는 반드시 군량과 무기를 비치한 연후에야 들어가서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3년 양식도 비축하지 못하였으니 그것조차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강도(江都)나 남한산성에 있는 곡식을 옮기려 한다면 이는 동쪽을 헐어다가 서쪽을 메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군량을 저축하지 않는다면 축성을 한들 장차 이를 무엇에 쓰겠습니까.”

부교리(副敎理) 홍치중(洪致中)이 말하였다.

“조태구의 말이 매우 절실합니다. 식량이 있는 후에야 성을 지킬 수 있으니, 비록 금성탕지(金城湯池: 공격하기 어려운 성과 그 둘레에 파놓은 못)라 하더라도 식량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의논은 참으로 많았다. 도성은 너무 넓어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유생(儒生)과 무신(武臣)들이 수차에 걸쳐 청하였으나, 내가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강도(江都)는 해적이 침입할 때나 해빙기에는 믿을 수 없는 곳이고, 남한산성은 강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이곳도 역시 어렵다. 그러나 북한산성은 도성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 도성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과 같이 들어가서 지킬 수 있다. 사람들의 의견은 마치 사람의 얼굴이 각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으로 다르다. 만일 반드시 의견이 통일된 연후에 일을 착수하려면 일이 성사될 날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너희들의 의논이 결정되었을 때 나는 이미 강을 건넌 것’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일단 축성을 결정한 후에는 설사 미진한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지킬 수가 있다. 지금 만일 1년, 2년 하다가 일정한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면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군량에 관한 문제는 절목(節目)에 관련되는 세세한 일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과는 경우가 다르니 잘 헤아려 처리하면 어려울 것이 없을 듯하다.” 이에 모든 신하들이 다 물러갔다.

왕이 시 한 수를 지어 해창도위(海昌都尉)에게 써 주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경연에서 정한 계획 심사숙고 끝에 나와 [經筵定計出深思]
 백성과 더불어 이를 지키려 하니 기쁘기 그지없도다 [更喜吾民與守之]
 그 옛날 온조가 이곳에 도읍을 정하더니 [昔日溫都斯地建]
 오늘날 이곳에 행궁을 짓도다 [今辰行殿此山治]
 그 아름다움여! 진 나라 효산(嶠山)의 험준함에 비할 만하구나 [美哉可比奏嶠險]
 높고 높음이어! 촉도(蜀道)의 위태로움과 한 가지일세 [高矣殊同蜀道危]
 새로 쌓은 성곽의 장엄한 그 모습 [屹屹崇墉新撰壯]
 해동에서 제일이라 그 누가 범하리오? [海東第一果誰爲]

○四月始築城九月訖役 城役分授三軍門 四月初三日始役至九月麟次畢役

□築役時所入米一萬六千三百八十一石 木七百六十七 同十二疋 錢三萬四千七百九十九兩 正鐵二千七百八十五斤 薪鐵二十二萬九千一百八十斤 石灰九千六百三十八石 炭一萬四千八百五十九石 生葛二千二同 四升布四同 小帽子九百立

4월에 축성을 시작하여 9월에 공사를 마쳤다. 역사(投事)는 3군문(軍門)에 분담하여 4월 초3일에 시작한 역사가 9월까지 고기비늘처럼 순차로 완료되었다.

□축성할 때에 소용된 물자는 쌀 16,381석(石), 포목(布木) 767동(同) 12필(疋), 전(錢) 34,799냥(兩), 정철(正鐵) 2,785근(斤), 신철(薪鐵) 229,180근(斤), 석회(石灰) 9,638석(石), 탄(炭) 14,859석(石), 생갈(生葛) 2002동(同), 사승포(四升布) 4동(同), 소모자(小帽子) 900립(立)이었다.

○壬辰 車駕幸山城 四月初十日 駕幸山城周覽城堞 嘆其天作之險有 御製詩六首

□計深陰雨幸新城 曉出南門鼓角鳴 驍騎數千分廬蹕 風熏日永屬朱明
 □西門初入一回頭 氣壯心雄寫我憂 國都咫尺金湯固 何棄吾民守漢州
 □間關十里到行宮 萃萃柴丹即在東 露積峯頭雲未捲 白雲臺上霧猶朦
 □登彼東臺若上天 千峯削立接雲烟 寇賊非徒不敢近 猿獠亦必愁攀緣
 □仗衛已先陳返途 城東駕出亦崎嶇 徐行周賢多形勝 況是清江與不孤
 □過剎道成逢坦路 風埃湖日將暮 士女如林瞻羽旄 抱冤皆許駕前訴

임진년(壬辰年: 1712)에 왕이 산성에 행행(行幸)하였다. 4월 초10일 왕이 산성에 행행하여 성첩(城堞)을 두루 관람하고 천연적인 험준함에 감탄하여 시 6수를 지으셨다.

깊은 생각 끝에 굶은 비를 무릅쓰고 새로 쌓은 산성에 올랐도다 [計深陰雨幸新城]
 새벽에 남문을 나오자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울려퍼지네 [曉出南門鼓角鳴]
 날랜 기병 수천 명이 대오를 나누어 호위를 하니 [驍騎數千分扈蹕]
 훈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해는 길어 어느덧 여름이 되었구나 [風熏日永屬朱明]

서문으로 들어가 고개 돌려 뒤돌아보니 [西門初入一回頭]
 왕성하고 웅장한 기운과 포부 내 맘 속의 시름 절로 지워지네 [氣壯心雄寫我憂]
 국도의 지척에 금성탕지(金城湯池)가 있으니 [國都咫尺金湯固]
 내 어찌 백성을 버려 수도를 지키지 않으리오? [何棄吾民守漢州]

도성 10리 거리의 행궁(行宮)에 이르니 [間關十里到行宮]
 높고 험한 시단봉(柴丹峯)이 바로 동쪽에 있구나 [萃萃柴丹即在東]
 노적봉 머리엔 아직도 구름이 걷히지 않았고 [露積峯頭雲未捲]
 백운대 위는 안개가 여전히 덮여있구나 [白雲臺上霧猶朦]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 저 동장대(東將臺)에 오르니 [登彼東臺若上天]
 무수한 봉우리가 운연(雲烟)과 맞대어 가파르게 서 있어 [千峯峭立接雲烟]
 도적과 비도(非徒)가 감히 다가올 수가 없고 [寇賊非徒不敢近]
 원숭들이라고 해도 가까이 가려하면 반드시 걱정을 할 것이다 [猿獠亦必愁寧緣]

호송 군사의 선진은 이미 되돌아 나갔고 [仗衛已先陳返途]
 성의 동쪽으로 어가가 나오니 또한 험하구나 [城東駕出亦崎嶇]
 서서히 가며 주위를 돌아보니 형승(形勝)이 다채롭구나 [徐行周覽多形勝]
 더구나 이 맑은 강의 흥취도 홀로 하지 않으니 [況是清江興不孤]

사찰 길을 지나니 봉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평탄한 길이 나오네 [過刹道成逢坦路]
 풍진(風塵)이 눈앞에 자욱하고 해는 저물어가네 [風埃湖日將暮]
 백성들이 수풀처럼 모여 깃발을 바라보고 [士女如林瞻羽旄]
 억울함 품은 사람들 어가 앞에서 하소연을 모두 허락하였네 [抱冤皆許駕前訴]

○乙未相臣李濡陳北漢事宜 以冊子條錄二十一事隨筭投進 聖批條錄詳盡可不依施 其請儲餉曰 此城非若江都 南漢之比 數十萬之民衆 皆當隨駕 以入則儲餉之道 大異於江都 南漢大略計其人口男丁十餘萬口 一日米二升 一朔當爲四萬餘石 女人十餘萬口 每口一日米一升 一朔當爲二萬餘石 一年之糧爲七十餘萬石 戶曹宣惠廳 常年稅入幾至四十萬石 而其一年用餘之數 並與各軍門各司餘儲 及閭巷私藏似不過二十萬石 必別儲五十萬石 而後可準七十萬石之數 而足爲一年之糧也 議者或以爲賊 無一年相持之理儲餉 何必如是過多 夫變亂遲速有不可期 丙子南漢被圍不過數月間 而猶患軍食已乏不能支數日 況如壬辰經年之兵燹乎 自古兵家最重者 糧餉苟可以辦得 雖百萬石不厭其多 何可預度其日月久近 而便謂之過多乎 且我國素不以積儲

爲務 而外方官穀率多散在野處 終必爲齋盜之歸 則乘此措置之際 俱收並蓄於根本之地 以備不虞 豈非策之善者乎 第城內則糶糴改色之道甚艱 只儲五萬石 一年每以一萬石 分給於所屬 各邑 當其受納之時 該邑守令 主管 而山城別將眼同看檢 則可使民無怨 而省弊矣 且三軍門亦各設倉儲餉 俱不下萬石 則都合爲八萬石 其視南漢之並與皮雜穀未滿 十萬石者 反有勝焉 以此亦足爲 初頭接濟之資 而元數五十萬石之內 除此五萬石 則其餘四十五萬石 當儲於蕩春臺平倉矣 又曰儲餉五十萬石之說驟聽者 必疑其辦出與改色之俱難 而三南儲置米中 每年隨其多少 多則除出四五萬石 少則除出二三萬石 八道還上雖云太半 逋欠時存取耗之數似不下數十萬石 亦爲除出四五萬石之米 取來積儲則十年之前 可準五十萬石何憂乎 辦出之難 戶曹宣惠廳一年稅入 幾至四十萬石 而百官頒祿軍兵放料貢物價放下者殆近三十萬 以此五十萬石之餉米每年限十五萬石 先下於料祿與貢物價取其翌年稅米收米之上納者而還充其代則用舊蓄新不出四五年之間何憂乎改色之難 此與南漢江都之專事糶糴厚招民怨猶患積逋陳腐者利害不翅相懸 且外方累萬石之穀連年運致勞費可慮無論沿邑山君察其市直之高下 或令該邑轉換錢布上送後與貢物主人輩所受之米相換仍留該廳以其上納之收米移捧於經理倉則亦合於推移變通之道 雖或以貢物年條之相換謂之有弊 而此則不然 近來錢布三色中從貴上下自是貢物主人之所大願者 既非引年引朔預給廉價私相買賣而當其分等受出之際 比市直加給其價則便同從貴上下 必皆樂從 何弊之有哉 自今依此施行 京外他衙門之圖買年條者 一切防塞 以專本廳鳩聚軍餉之路 且忠州還穀最多 不患糶糴之不足 則陽津倉之米不必積置於無城之地 安興倉之米其數過多 本道欲其減省 此兩倉米各除出一萬石 海西詳定米以逐年添入 漸至陳久有所難處 云限萬石 恒留本道之外 其餘則並爲移儲平倉 亦似得宜矣 其請並築蕩春臺 曰蕩春臺一區 亦是天險之地 前有都城舊堞 後有北漢新築 今又完畢水門之役 以塞其洞口 自此倉庫無虛疎之虞 人民有安接之意 不但爲外賊之可防 而第自水門西至于文殊峯前 又自白岳北至于大成門外 獨無所障礙 若徒恃其阻隘而置之 則似非萬全之計 臣意則就此兩面 若築土城 可省功力 而亦足守禦 且觀白岳以北 至于大成門外 山麓久通樵路 無一草一木 以致沙土流下 崖岸漸圯 從其外面 築土城 添補新土 於內面 被莎其上 仍樹雜木 則禦賊之道 既甚完備 亦可山麓堅實 永無空缺之慮 矣 且彰義門之內 不設夾城 則只憑舊城 無以禦賊 自白岳西邊 至于仁王峯 曲城之底 隨其懸崖絕壁之間 略施女堞 擺列若干軍卒 曲城之上 多設大砲 凭高據險 俯瞰都下 則賊雖有百萬之衆 決無攀登之勢 亦不得遁形 匿跡不戰 而自挫矣 此爲兼守都城之一大要 並宜從便料理 劃即成就 矣 此外民兵分屬江倉 移設軍器 移置牧牛 移給紙所 設置菽 貯貯鹽醬 措置等事 不能盡錄。

을미년(乙未年: 1715)에 상신(相臣) 이유(李濡)가 북한산에 대해 조치할 일들을 진달하였다. 책자에는 21개 조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차자(筭子)와 함께 왕에게 올렸다. 왕이 각 조목의 내용이 상세하니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하여 시행하라고 비답을 내렸다. 여기에서 식량비축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북한산성은 강화도나 남한산성 등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시에 수십만 민중이 모두 왕을 따라 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므로 비축해야 할 식량의 분량은 강화도나 남한산성과 크게 다릅니다. 대략 인구를 계산해 보면, 남자 10여만 명의 1일 식량을 쌀 2승(升)으로 계산하면 1개월에 4만여 석이 필요하고, 여자 10여만 명의 1일 식량을 쌀 1승(升)으로 계산하면 1개월에 2만여 석이 필요하므로 1년분의 식량은 약 70여만 석이 필요합니다. 호조(戶曹)·선혜청(宣惠廳)에 들어오는 1년분 세곡(稅穀)이 약 40여만 석인데 1년간 경비를 쓰고 남은 것과 각 군문(軍門)의 것, 각 관청 또는 민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합해도 겨우 20만 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50만 석을 저축한 후에야 70만 석의 숫자를 채울 수가 있으며, 그래야 1년의 식량이 족할 것입니다. 축성을 의논하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적과 1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처할 리가 없을 터인데, 반드시 양식을 이처럼 과다하게 1년분씩이나 저축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란이라는 것은 빨리 끝날지, 늦게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병자호란 때에는 남한산성이 포위된 지 수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군량이 떨어져 며칠을 더 지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임진왜란 같은 수년에 걸친 전쟁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습니까? 예로부터 병가(兵家)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군량이니 진실로 변동할 수만 있다면 설사 그것이 백만 석이라 하더라도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지, 더디게 끝날지를 어떻게 예측하여 선불리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양곡을 저축하는 데 힘쓰지 않고 지방 관곡(官穀)의 대부분을 평야지대에 분산해 두었다가 결국에는 도적들이 가져가 버리게 하고 말았으니 북한산성을 조처하는 기회에 이를 다 거두어 들여 국가 방어에 근본이 되는 지역(북한산성)에 비축하여 사변에 대비하는 것이 좋은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산성 내에서는 양곡의 출납과 신구곡(新舊穀)의 교환이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5만 석을 비축하고, 그것을 매년마다 1만 석씩 소속 각 고을에 나누어 주었다가 수납할 때에 해당 읍의 수령이 주관하도록 하고 산성별 장(山城別將)이 입회하여 검사하도록 하면 백성들의 원망도 없을 것이고 그 폐해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군문(軍門)에서도 각기 창고를 설치하여 저축한 군량미가 1만 석씩이 넘으니 모두 합하면 8만여 석이 됩니다. 남한산성의 양곡 비축이 피곡(皮穀)과 잡곡(雜穀)을 합하여 10만 석도 못되는데, 그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이것은 초두(初頭)에 위급함을 구제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량입니다. 원수(元數) 50만 석 가운데서 이 5만 석을 제외한 나머지 45만 석은 의당 탕춘대성(蕩春臺城) 안에 있는 평창(平倉)에 저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양곡 50만 석을 저축한다는 말을 갑자기 듣는 사람들은 그 마련방법과 신구곡 교환 방도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남(三南)에 저축한 쌀 중에서 매년 그 다소에 따라 많을 때는 4~5만 석을 털어 내고, 적을 때는 2~3만 석을 털어내면 됩니다. 8도에서 거두는 환상곡(還上穀)은 비록 미납세가 태반이라고 하나 현재의 모곡(耗穀)만도 수십만 석에 달할 것이니, 여기서도 4~5만 석을 털어내어 비축한다면 10년 내에 50만 석을 비축할 수 있으니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걱정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조(戶曹)·선혜청(宣惠廳)의 1년 세입이 거의 40만 석에 이르고 백관(百官)에게 주는 녹(祿)과 군량미(軍糧米)·공물(貢物) 등으로 지출되는 것도 거의 30만 석이나 됩니다.

이 저축한 50만 석에서 매년 15만 석씩을 한정하여 먼저 군량(軍糧)과 관리의 녹봉(祿俸) 그리고 공물(貢物)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듬해에 세미(稅米)를 받아 상납한 것을 여기에 대신하여 충당하도록 하면 됩니다. 구미(舊米)를 쓰고 신미(新米)를 계속 저축하기를 4~5년간씩 한다면 양곡을 개색(改色: 묵은 양식을 새 양곡으로 바꾸어 줌)하는 일이 어렵다고 근심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남한산성이나 강화도에서 양곡을 출납하느라 법석을 떨고 백성의 원성을 사면서도 양곡이 적체되어 썩어나는 것과 비교해서 득실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수만 석에 달하는 지방의 곡식이 해마다 운반되는 노고와 비용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의 연해(沿海)와 산지를 막론하고 각 고을들의 시장가격이 높고 낮음을 조사한 뒤에 해당 고을에서 곡식을 돈이나 베로 바꾸어 올려 보낸 후 공물(貢物) 주인들이 받은 쌀을 서로 바꾸어 해당관청에 그대로 남겨두고 상납한 쌀을 경리창(經理倉)으로 옮기게 한다면, 추이변통(推移變通)하는 방도에 합당할 것입니다.

근래의 쌀·돈·베 세 가지 물건 중에서 품귀현상에 따라 가격변동이 생기는 것은 본디 공물(貢物) 주인이 바라는 바입니다. 때에 따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미리 염가로 지급하여 사사로이 매매하게 했다가 등급을 나누어 받아들이거나 내어줄 때에 시장가격에 맞추어 그 값을 더 지급한다면, 가격변동에 맞추는 것이 되어 모두들 즐겨 따를 것이니 여기에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대로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관아에서 그 해 공물을 구매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오로지 본청으로만 군량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충주(忠州)는 환곡(還穀)이 가장 많아서, 조적(糶糶)이 부족할 염려가 없으니 양진창(陽律倉)의 쌀을 성곽이 없는 곳에 적치(積置)해 둘 필요가 없으며, 안흥창(安興倉)의 쌀은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본도(本道)에서 그 양을 줄이려고 하니, 이 두 창고에 있는 쌀을 각각 1만 석씩 줄이려면 됩니다. 해서상정미(海西詳定米: 황해도에서 거둔 대동미의 일종)도 매년 늘어나서 점차 목계 되어 처치가 곤란하다고 하니, 본도(本道)에 1만 석씩만 보유하게 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모두 평창에 저축하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울러 다음과 같이 탕춘대성(蕩春臺城)의 축조를 청하였다.

“탕춘대가 있는 지역도 역시 천연의 요지입니다. 전에는 도성의 옛 성첩(城堞)이 있었고, 후에 다시 북한산성을 새로이 쌓았는데, 지금은 수문(水門) 역사(投事)가 완전히 끝나서 세검정(洗劍亭) 동구(洞口)를 막았습니다. 이제는 창고가 허술할 우려가 없고 인민(人民)들도 편안히 살 생각을 가지게 되어 단지 외적을 막을 수 있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문(水門)에서 서쪽으로 문수봉(文殊峯) 앞까지, 또 백악산(白岳山)에서 대성문(大成門) 밖까지의 지역에 장애물(障礙物)이 없습니다. 만약 지형의 험한 것만 믿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만전의 계획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두 방면에 토성(土城)을 쌓는다면 적은 공력(功力)으로도 충분히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백악산(白岳山)의 상황을 살펴보면 북쪽의 대성문 밖 산록까지는 예로부터 소로가 있어,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없이 토사(土沙)가 흘러내려 언덕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외면(外面)을 따라서 견고하게 토성을 축조하고 토성 안쪽에다 새 흙을 보충하여 그 위에 떼를 입힌 뒤에 잡목(雜木)을 심는다면 적을 방어하는 대책이 완비될 것이며, 산기슭이 견고해져서 영원히 무너지질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문(彰義門) 안에는 협성(夾城)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단지 구성(舊城)에만 의지한다면 적을 방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백악산 서쪽으로부터 인왕봉(仁王峯) 곡성(曲城) 아래까지 깎아 세운 듯 험한 절벽 사이를 따라 여첩(女堞)을 쌓고, 곡성(曲城) 위에 약간의 군졸들을 배치하고, 대포를 많이 설치하여 높고 험한 곳을 의지하여 도성을 내려다보고 지키게 한다면 적이 비록 백만 명이라 할지라도 결코 기어 올라 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몸을 숨길 곳도 없게 될 것인 즉, 적은 마침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는 도성도 함께 지키는 요점이니 적절히 형편에 따라 계획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민병(民兵)을 나누어 강창(江倉)에 소속시키고, 군기(軍器)를 옮겨서 설치하며, 목우(牧牛)를 옮겨서 배치하고, 지소(紙所)를 이급(移給)하며, 꿀을 비축하고, 염장(鹽醬)을 조치하는 일 등은 일일이 모두 다 기록하지 못한다.

● 관원(官員)

經理廳 別設一廳於京城鄉校洞略有所儲軍官書吏等守直

都提調一員 領議政例兼

提調一員 卿宰中啓下兼帶

郎廳一員 備邊司武郎廳中一人劃出兼帶

管城將一員 以曾經闔帥人 啓下始稱 行宮所衛將後稱都別將壬寅改稱管城將

경리청(經理廳) : 별도로 한 청(廳)을 경성(京城) 향교동(鄉校洞)에 설치하여 약간의 미곡을 저축하였다. 군관(軍官) 과 서리(書吏) 등이 숙직과 일직을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1원(員)은 영의정(領議政)이 당연직

으로 겸임되었다. 제조(提調) 1원은 재상(宰相) 중에서 왕이 겸무를 명하였다. 낭청(郎廳) 1원은 비변사(備邊司) 무낭청(武郎廳)에서 1인을 차출하여 임명하였다. 관성장(管城將) 1원은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를 지낸 사람을 왕이 임명하였다. 처음에는 행궁소(行宮所) 위장(衛將)이라고 불렀고, 후에는 도별장(都別將)이라고 불렀으며, 경종 2년(1722) 임인(壬寅)에는 관성장(管城將)이라고 고쳐서 불렀다.

◎ 장교이졸부(將校吏卒附)

經理廳戶房一員 軍官三員 書更四人 庫直二人 使令五人 文書直一人 軍士二人 丘從二人 平倉庫直一人 軍士二人

- 管城所 軍官二十三員 二十窠射料 三窠應料 執事二員 把摠一員 哨官五員 各色次知五員 書員二員 庫直三人 使令二人 廳直二人 旗手二十人 行宮軍士二人 倉軍士三人 房直二人
- 大成門將 東門將 西門將 甲士屯將 黔岩屯將 各一員 以本城軍官望報差出 守堞軍官二百六十六人 別破陣二百人 牙兵六百三十五人
- 僧營 僧大將一員 以八道都摠攝兼 中軍 左右別將 千總 把摠 哨官 左右兵房 各一人 教鍊官 旗牌官 中軍兵房 各二人 五旗次知 一人 都訓導 別庫監官 各一人 射料軍官 十人 書記二人 通引二人 庫直三人 冊掌務 板掌務 各一人 吹手二人 各寺僧將 十一人 首僧 十一人 義僧 三百五十人 分定各道一年分六次上番
- 訓練都監 留營監官一員 以該營執事分差兩軍門同 書員一人 庫直二人 守直軍一人 使喚軍 北門直 各二人 守口門直一人
- 御營廳 留營監官一員 書員一人 庫直二人 守直軍一人 使喚軍 西門直 中城門直 各二人 文殊門直一人
- 禁衛營 留營監官一員 書員一人 庫直二人 守直軍一人 使喚軍 大城門直 各二人
- 戶曹 庫直一人 軍士二人

장교(將校) 이졸(吏卒) 부(附)

□ 經理廳(經理廳): 호방(戶房) 1원(員), 군관(軍官) 3원, 서리(書更)

4인, 고직(庫直) 2인, 사령(使令) 5인, 문서직(文書直) 1인, 군사(軍士) 2인, 구종(丘從) 2인이 있다.

□ 평창(平倉): 고직(庫直) 1인, 군사(軍士) 2인이 있다.

□ 관성소(管城所): 군관(軍官) 23원이 있다. 그 중에서 20명은 화살, 3명은 군량을 담당한다. 집사(執事) 2원, 파총(把摠) 1원, 초관(哨官) 5원, 각색차지(各色次知) 5원, 서원(書員) 2인, 고직(庫直) 3인, 사령(使令) 2인, 청직(廳直) 2인, 기수(旗手) 20인, 행궁군사(行宮軍士) 2인, 창군사(倉軍士) 3인, 방직(房直) 2인이 있었다.

□ 대성문장(大成門將)·동문장(東門將)·서문장(西門將)·갑사둔장(甲士屯將)·흑암둔장(黑岩屯將) 각각 1명이 있다(이들은 본성군관本城軍官 중에서 차출하였다). 수첩군관(守堞軍官) 266인, 별파진(別破陣) 200인, 아병(牙兵) 635인이 있다.

□ 승영(僧營): 승대장(僧大將) 1원이 있는데,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 이 겸임하였다. 중군(中軍)·좌우별장(左右別將)·천총(千總)·파총(把摠)·좌우병방(左右兵房) 이 각각 1인, 교련관(教鍊官)·기패관(旗牌官)·중군병방(中軍兵房)이 각각 2인이 있다. 5기차지(五旗次知) 1인, 도훈도(都訓導)·별고감관(別庫監官) 각 1원, 사료군관(射料軍官) 10인, 서기(書記) 2인, 통인(通人) 2인, 고직(庫直) 3인, 책장무(冊掌務)·판장무(板掌務) 각각 1인, 취수(吹手) 2인, 각사승장(各寺僧將) 11인, 수승(首僧) 11인, 의승(義僧) 350인

이 있다(이들은 각 도의 승려들 중에서 차출하여 2개월씩 복무토록 하였다).

□ 훈련도감(訓練都監) : 유명감관(留營監官) 1원이 있다(이는 해당 영에서 집사執事가 차출하였다. 양군문兩軍門도 같다). 서원(書員) 1인, 고직(庫直) 2인, 수직군(守直軍) 1인, 사환군(使喚軍)·북문직(北門直) 각 2인, 수구문직(守口門直) 1인이 있다.

□ 어영청(御營廳) : 서원(書員) 1인, 고직(庫直) 2인, 수직군(守直軍) 1인, 사환군(使喚軍)·서문직(西門直)·중성문직(中城門直) 각각 2인, 문수문직(文殊門直) 1인이 있다.

□ 금위영(禁衛營) : 유명감관(留營監官) 1원이 있다. 서원(書員) 1인, 고직(庫直) 2인, 수직군(守直軍) 1인, 사환군(使喚軍)·대성문직(大城門直) 각각 2인이 있다.

□ 호조(戶曹) : 고직(庫直) 1인, 군사(軍士) 2인이 있다.

◎ 궁전(宮殿)

行宮 在上元峯下坐申

內殿二十八間 左右上房各二間 大廳六間 四面退 十八間 共爲二十八間 又左右行閣房九間 廳五間 中門一間 又大門三間 水刺所五間 中門一間 廁二間

外殿二十八間 制同上又 大門三間 北俠門一間 外北牆中門一間 又外行閣房十二間 樓四間 廳四間 又虛間二間 中門二間 外大門三間 北邊外大門一間

행궁(行宮) : 상원봉(上元峯)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다.

내전(內殿) 28칸: 좌우상방(左右上房)이 각각 2칸, 대청(大廳)이 6칸, 4면퇴(面退)가 18칸으로 모두 28칸이다. 또 좌우행각방(左右行閣房)이 9칸, 청(廳)이 5칸, 중문(中門)이 1칸이다. 또한 대문(大門) 3칸, 수라소(水刺所) 5칸, 중문(中門) 1칸, 측소(廁所) 2칸이 있다.

외전(外殿) 28칸: 모든 체제는 내전과 같다. 대문(大門) 3칸, 북협문(北俠門) 1칸, 외북장중문(外北牆中門) 1칸, 외행각방(外行閣房) 12칸, 루(樓) 4칸, 청(廳) 4칸이 있고, 또 헛간(虛間)이 2칸, 중문(中門) 2칸, 외대문(外大門) 3칸, 북변외대문(北邊外大門) 1칸이 있다.

◎ 사찰(寺刹)

○香林寺 在碑峯南今廢

□ 高麗顯宗康戊之亂 移安太祖梓宮于是寺 七年丙辰還葬顯陵 九年契丹蕭遜寧來侵 又移安于是 十年復葬顯陵

향림사(香林寺) : 비봉(碑峯) 남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 고려 현종 원년(1010) 경술(康戌)에 거란족이 침입하였을 때 태조의 재궁(梓宮: 관을 높여 부르는 말)을 이 절로 옮겼다가 현종 7년(1016) 병진(丙辰)에 현릉(顯陵)으로 환장(還葬)하였다. 현종 9년에 거란의 소손녕(蕭遜寧)이 침입하여 또다시 이곳으로 옮겼다가 현종 10년에 현릉에 환장하였다.

○積石寺 今爲訓局倉舍

적석사(積石寺): 지금은 훈련도감의 창고가 되었다.

○淸涼寺 今廢舊址未詳

□高麗李資玄在春州淸平山 睿宗幸南京遣其弟資德 諭赴行在留淸涼寺 嘗引見問養性之要 遂進心要一篇 王歎賞待遇甚厚

청량사(淸涼寺):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유지(遺址)도 알 수 없다.

□고려 때 이자현(李資玄)이 춘주(春州) 청평산(淸平山)에 있었는데 예종(睿宗)이 남경(南京: 현재 서울)으로 거둥하였을 때 그의 동생 자덕(資德)을 보내서 그를 불렀다. 이자현은 행재소에 나아가 청량사(淸涼寺)에 머물렀다. 왕이 이자현을 인견하고 양성(養性: 자기의 천성을 길러서 자라게 하는 것)의 요점을 묻자 마침내 「심요(心要)」 1편을 왕께 올리니 왕이 크게 칭찬하시고 매우 후하게 대접하였다.

○僧伽寺 在碑峯東今廢

□有高麗李顥所撰重修記

□高麗俞文安元淳詩 崎嶇石棧躡雲行 華構隣天若花城 秋露輕霏千里爽 夕陽遙浸一江明 漾空嵐細連香穗 啼谷禽閑遞磬聲 可羨高僧心上事 世途名利總忘情

□本朝鄭文成麟趾詩 纔巖山路險 携杖更攀蘿 簷際行雲宿 窓前瀉瀑多 煮茶餅細呌 汲水井微波 數箇高僧在 觀空或放歌

□柳泰齋方善詩 僧伽蘭若倚岩嶠 却算曾遊歲月遙 何日更於禪榻畔 一燈清坐度寒宵

승가사(僧伽寺): 비봉(碑峯) 동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고려시대의 이오(李顥)가 찬(撰)한 「중수기(重修記)」가 있다.

□고려시대 문안공(文安公) 유원순(俞元淳)의 시

험한 산길 돌다리를 구름 밟으며 걷노라니 [崎嶇石棧躡雲行]

활짝 핀 꽃들이 하늘에 잇닿아 마치 꽃성을 이룬 듯 [華構隣天若花城]

가을 이슬 가랑비 되어 뿌러지니 상쾌한 기운이 천 리에 뻗쳤고 [秋露輕霏千里爽]

아득히 강물에 비친 저녁놀에 강물이 더욱 환하구나 [夕陽遙浸一江明]

물결 넘실거리는데 산들바람에 벼이삭 향기 풍기어 오네 [漾空嵐細連香穗]

저 멀리 산골짜엔 새소리와 풍경소리 갈마들며 들리어 온다 [啼谷禽閑遞磬聲]

고요히 불심 닦는 고승의 심경이 부럽고야! [可羨高僧心上事]

속세의 명리는 씻은 듯 사라져 그윽한 무아지경에 빠져드네 [世途名利總忘情]

□ 조선시대 문성공(文成公) 정인지(鄭麟趾)의 시
 가파른 바위산의 험준한 산길 [纒巖山路險]
 지팡이를 짚다가 다시 뒤통굴을 잡으며 기어오른다 [携杖更攀蘿]
 처마 끝엔 떠돌던 구름이 멈추고 [簷際行雲宿]
 창 앞엔 폭포수가 쏟아지네 [窓前瀉瀑多]
 차 달이는 항아리에서 은은히 물 끓는 소리 [煮茶餅細呌]
 우물에 물 길어 작은 물결 일어나네 [汲水井微波]
 두어 명 고승이 둘러앉아 [數箇高僧在]
 하늘을 바라보며 혹은 노래부르네 [觀空或放歌]

□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의 시
 승가사(僧伽寺)의 난초 바위산에 기대어 있는 듯 [僧伽蘭若倚岩嶠]
 일찍이 이곳에 와서 놀던 시절, 아득히 먼 옛날일세 [却等算曾遊歲月遙]
 그 어느 날 다시 선방(禪房)의 긴 의자 옆에서 [何日更於禪榻畔]
 등불 켜고 단정히 앉아 겨울밤을 보낼꺼냐? [一燈清坐度寒宵]

○三千寺 在小南門外今廢

□ 有高麗李靈幹所撰碑

□ 元曉和尚與眞寬祖師建此寺及津寬寺 其遺址宛狀 皆各有大石槽一 是其時沐浴之器云

삼천사(三千寺): 소남문(小南門)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 고려의 이영간(李靈幹)이 지은 비문(碑文)이 있었다.

□ 원효화상(元曉和尚)과 진관조사(津寬祖師)가 삼천사와 진관사(津寬寺)를 건립하였다. 그 유지(遺址)가 뚜렷이 남아 있다. 양 사찰에는 큰 석조(石槽: 큰 돌을 파서 물을 부어 쓰던 것)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당시에 목욕하던 그릇이라고 한다.

○津寬寺 在三千洞今廢

□ 有權近水陸社造成記

□ 鄭郊隱以吾詩 青青松柏擁池臺 地僻天探洞府開 溪似玉圍流屈曲 山如雲湧勢崔嵬 汰僧元魏猶供笑 惑佛蕭梁不滿哀 無是無非心自正 孰爲緣覺孰如來

진관사(津寬寺): 삼천동(三千洞)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 권근(權近)이 수록사(水陸社)를 조성한 기록이 있다.

□ 교은(郊隱) 이이오(李以吾)의 시

푸르고 푸른 송백, 연못의 누대(樓臺)를 감싸안고 있네 [靑靑松柏擁池臺]
 깊숙한 산간에 그윽한 집을 지어놓아 [地僻天探洞府開]
 냇물은 마치 구슬처럼 굽이치며 흐르고 [溪似玉圍流屈曲]
 산봉우리는 뭉개구름처럼 솟구치는 형세가 우뚝하여라 [山如雲湧勢崔嵬]
 불교를 탄압하던 원위(元魏)는 웃음을 터뜨리고 [汰僧元魏猶供笑]
 불교에 미혹했던 소량(蕭梁)은 고요한 슬픔에 젖네 [惑佛蕭梁不滿哀]
 시비를 다루는 마음이 없으면 심경은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 [無是無非心自正]
 그 누가 인연의 법칙을 깨달아 부처가 될 것인가? [孰爲緣覺孰如來]

○道成菴 在東門外 貞懿公主願刹今廢

도성암(道成菴): 산성의 동문 밖에 있었다. 정의옹주(貞懿翁主)의 원찰(願刹)이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文殊寺 在文殊峯下

- 高麗李樂軒藏用詩 城南十里平沙白 城北數朶重岑碧 老守疎慵放早衙 出遊浩蕩尋幽跡 還他駕鶴楊州天 添却騎驢華山籍 官事欲了無奈癡 賞心易失尤堪惜 黃裾喝引太俗生 碧眼相携有高格 試攀崎嶇石經斜 漸出濛龍林嶺隔 俯臨絕谷但蒼茫 上到危巔增踟躕 晴峯距日纔數尋 雲棧凌虛幾千尺 鳥飛杳漠楚天低 野廣分明漢江畫 非煙西望即仙州 大浸南連通水驛 一廻徙倚獨嗟咨 八極須臾可揮斥 懸磴參差九十層 舊躅依稀上下屐 奇哉不世青蓮宮 云是大智真人宅 石窟呀開苔蘇斑 林龕眩晃丹青射 睇容宛若福城東 寶趺高馭金猊脊 相望遍吉長者居 誰識法界玄關關 大慧的的鐫煩襟 一掬涓涓貯靈液 遊人恐觸天龍噴 卜飲試呪盃梭擲 煙霞影裏孤塔青 鍾梵聲中一燈赤 依然勝會移普光 應有妙供來香積 聞昔先王焚御香 至今中使祈宗祏 我來適植雲物秋 僧留勸賞山色夕 倚簷列岵玉嵯峨 當檻遙林錦狼籍 喜浪蔬食飫清芳 旅借蒲團寄安適 語闌缺月入深扉 夜久微風吟聳栢 最憐禪榻靜寥寥 忽笑人生何役役 未能容易掛衣冠 儻可功名垂竹帛 清眼恰被健稚呼 紅量已動鴉輪赫 擬追台崖招手人 塊同盧嶽攢眉客 莫嫌塵語汗青山 曾演綸言直丹掖
- 僧坦然詩 一室何寥廓 萬緣價寂寞 路穿石罅通 泉透雲根落 皓月掛簷楹 涼風動林壑 誰從彼上人 清坐學眞樂
- 本朝崔簡易岵詩 文殊路已十年迷 有夢猶尋北郭西 萬壑倚筇雲遠近 千峯開戶月高低 碧殘石竇晨泉滴 燈剪松風夜鹿啼 此況共僧那再得 官街七月困泥蹄
- 洪世泰詩 蕭寺昏鐘度上方 府看千界一微茫 星搖絕頂樓臺影 風散諸天草木香 行處嶽雲生蠟屐 坐來江色到禪床 當時老宿今無在 不怪滄翁白髮長

문수사(文殊寺): 문수봉(文殊峯) 아래에 있다.

- 고려시대 낙헌(樂軒) 이장용(李藏用)의 시
 도성(都城) 남쪽으로 10리에 걸친 너른 백사장이 있고 [城南十里平沙白]
 도성 북쪽으론 수많은 푸른 봉우리가 솟아 있어 [城北數朶重岑碧]
 게으른 늙은이들 아침 조희 집어치우고 [老守疎慵放早衙]
 호탕하게 심산유적을 찾아 유람길을 떠나네 [出遊浩蕩尋幽跡]

학을 타고 양주(楊州) 땅으로 날아가려던 욕심은 그만두고 [還他駕鶴楊州天]
 노새를 타고 화산(華山)을 찾아 머물러 하네 [添却騎驢華山籍]
 국사(國事)를 그르치지 않으려 하건만 어리석은 이 몸을 어이하리 [官事欲了無奈癡]
 상심(賞心: 경치를 감상하는 마음)을 쉬어 잃어버리니 그 더욱 애석하고야 [賞心易失尤堪惜]
 황색도포 입은 이가 고함질러 속언을 끌어 들이니 [黃裾喝引太俗生]
 벽안의 승려 달마(達摩)가 손을 잡아주매 고상한 품격 더욱 돋보이네 [碧眼相携有高格]
 험준한 바윗산 비탈길로 두 손 잡아 오르려 하니 [試攀崎嶇石經斜]
 서서히 비구름 가시고 수목 무성한 산마루 고개, 아득히 모습 드러내 [漸出濛龍林嶺隔]
 가파른 계곡을 굽어보니 오직 푸르고 아득하기만 하다 [俯臨絕谷但蒼茫]
 험한 산마루로 기어오르니, 두려움에 더욱 몸 둘 곳을 몰라라 [上到危巔增踟]
 맑은 산봉우리, 태양 바로 몇 길 아래에 솟아 있어 [晴峯距日纔數尋]
 구름 속에 가물거리는 잔도(棧道)는 수천 척(尺) 높은 계곡에 달려 있네 [雲棧凌虛幾千尺]
 아득한 남녘 나라의 하늘로 새들이 날아가네 [鳥飛杳漠楚天低]
 들녘에 그림처럼 또렷한 한강(漢江) 줄기 [野廣分明漢江畫]
 물안개 없는 서쪽을 돌아보니 그 바로仙境(仙境)이로세 [非煙西望即仙州]
 큰 물이 남으로 이어져 나루에 잇닿았네 [大浸南連通水驛]
 한 바퀴 발길을 옮기어 기대어 서서 홀로 탄식하니 [一廻徙倚獨嗟咨]
 팔극(八極)이 순식간에 다다를 수 있으니 가히 도끼를 휘두를만 하다 [八極須臾可揮斥]
 저 높이 들계단이 이리저리 구부러지며 구십 층(層)을 이어가니 [懸磴參差九十層]
 옛 발자취는 마치 사령운(謝靈運)의 상하극(上下屐) 자국 같구나 [舊躅依稀上下屐]
 기이하도다, 불세출의 이태백(李太白)이 살던 청련궁(靑蓮宮)이여! [奇哉不世靑蓮宮]
 그곳은 깊은 지혜 감춘 진인(眞人)이 사는 집이라네 [云是大智眞人宅]
 석굴(石窟)이 입을 벌려 활짝 열려지니 이끼가 얼룩무늬 이루고 [石窟呀開苔蘇斑]
 무수히 늘어선 탑들은 현란하고 단청(丹青)의 그림은 눈부시네 [林龕眩晃丹青射]
 지은 지 1년이 되는 집의 모습은 흡사 복성(福城)의 동쪽과 같다 [睟容宛若福城東]
 귀한 형상 가부좌 틀고 황금사자 높이 타고 굽어보고 있다 [寶趺高馭金狻脊]
 바라보니 두루 길상(吉祥)스러운 것이 장자(長者)가 머무는 곳 같다 [相望遍吉長者居]
 부처님 세계의 오묘한 진리의 문 여는 방법, 그 누가 알리오? [誰識法界玄關關]
 대자대비한 저 모습은 속세의 번뇌를 깨끗이 씻어주고 [大慈的的鑷煩惱]
 줄줄 흐르는 한 모금의 물은 영액(靈液)을 간직하고 있구나 [一掬涓涓貯靈液]
 유람객은 천룡(天龍)의 노여움을 살까 조심조심 [遊人恐觸天龍噴]
 깊이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고 나서 물그릇을 가만히 내려놓는다 [卜飲試呪盃梭擲]
 연하(煙霞)의 그림자 속에 고탑(孤塔)이 푸른 빛을 머금고 [煙霞影裏孤塔靑]
 범종(梵鍾)소리 은은히 울리는데 한 점 등불만 붉게 타오르네 [鍾梵聲中一燈赤]
 예와 같이 성대한 모임을 보광사(普光寺)로 옮기었으니 [依然勝會移普光]
 응당 아름다운 공양(供養)은 향적사(香積寺)로 오겠거니 [應有妙供來香積]
 그 옛날 선왕께서 이 절에 분향하셨단 말을 듣더니 [聞昔先王焚御香]
 지금은 내시들이 종석(宗祏)을 돌보고 있네 [至今中使祈宗祏]

내가 오니 때 마침 흰 구름이 아리따운 가을날이어라 [我來適植雲物秋]
 산승(山僧)이 가을 저녁 산 풍경을 감상하며 머물기를 권하네 [僧留勸賞山色夕]
 처마에 기대 산봉우리들 줄지어 있고, 주옥(珠玉) 같은 산악 험하기도 하여라 [倚簷列岵玉嵯峨]
 난간에 기대니 아득한 저 수풀, 비단을 어지러이 펼쳐 놓은 듯 [當檻遙林錦狼籍]
 기꺼이 채식(菜食)을 먹으니 청향(清香)이 그윽하네 [喜飡蔬食清香館]
 잘 자리를 빌어 지친 육신을 눕히니 편안하기 그지없어라 [旅借蒲團寄安適]
 대화가 무르익을 제 이지러진 달빛이 사립문 깊숙이 스며들고 [語闌缺月入深扉]
 깊은 밤 미풍은 우뚝 자란 잣나무를 한들거리게 하는구나 [夜久微風吟聳栢]
 사랑스레 선방(禪房)의 침상에 스며드는 이 고요함이어 [最憐禪榻靜寥寥]
 우스워라, 인생은 왜 이다지도 분망하고 [忽笑人生何役役]
 관복(官服)을 훌훌 벗어 제치고 초야로 돌아가기도 어렵구나 [未能容易掛衣冠]
 혹 가능하다면 공명을 이루어 죽백(竹帛)에 써서 드리우리라 [儻可功名垂竹帛]
 맑은 수면(睡眠), 때 마침 들려오는 힘찬 아이들 고함소리에 깨어나니 [清眼恰被健稚呼]
 붉은 아침 햇살 감돌아 태양의 밝은 수레바퀴 힘차게 떠오르네 [紅暈已動鴉輪赫]
 가파른 절벽에서 손짓하며 부르는 은자(隱者)를 뒤따르니 [擬追台崖招手人]
 여산(蘆山)이 눈살 찌푸리는 숙인과 더불어 있음이 부끄러워 [塊同蘆嶽攢眉客]
 미워하지 마오, 속세의 언어로 청산을 더럽힌다고 [莫嫌塵語汚青山]
 군왕의 조칙이 반포되면 그것이 바로 선약(仙藥)일세 [曾演綸言直丹掖]

□ 승(僧) 탄연(坦然)의 시

방안이 어찌 이리 적료하고 [一室何寥廓]
 이 세상 온갖 인연이 다 적막하여라 [萬緣價寂寞]
 산길은 바위틈으로 뚫리어 이어지고 [路穿石罅通]
 샘물은 물안개를 가로질러 곤두박질치네 [泉透雲根落]
 밝은 달은 처마와 기둥에 덩그러니 매달려 있고 [皓月掛簷楹]
 서늘한 바람은 수풀 무성한 골짜기를 우수수 흔드네 [涼風動林壑]
 그 누가 저 피상인(彼上人: 은자)을 따라가 [誰從彼上人]
 단정히 앉아서 참된 즐거움의 경지를 배울 것인가? [清坐學眞樂]

□ 조선시대 간이(簡易) 최립(崔崐)의 시

문수사(文殊寺)로 가는 길, 이미 십 년을 찾아 헤매니 [文殊路已十年迷]
 꿈속에선 아직도 북한산성 서쪽을 찾아나선다 [有夢猶尋北郭西]
 만학(萬壑)에 대지팡이 의지하고 서 있노라면 구름이 들쭉날쭉 오가고 [萬壑倚雲遠近]
 천봉(千峯) 앞에 창문을 열고 앉았노라면, 달이 높이 떠올랐다 기울어가네 [千峯開戶月高低]
 풍경소리의 여운 속에 바위 틈새로 맑은 새벽 샘물이 영롱한 소리를 이루고 [碧殘石竇晨泉滴]
 등잔불 심지 자르며 밤을 지새우매 솔바람 소리타고 밤노루 우는 소리 들리네 [燈剪松風夜鹿啼]
 산승(山僧)과 더불어 지내는 이 정경, 언제 다시 구하리오 [此況共僧那再得]
 관가(官街)의 칠월, 진흙탕을 걷는 발길 끈고롭구나 [官街七月困泥蹄]

□ 홍세태(洪世泰)의 시

쓸쓸한 산사(山寺)의 저녁 종소리, 멀리 산 너머로 사라져 가고 [蕭寺昏鐘度上方]
 저 아래 인간세상 내려다보니, 아득하고 멀기만 하네 [府看千界一微茫]
 별빛은 하늘 위에 깜박이고, 누대(樓臺)는 땅 위에 그림자 드리우고 [星搖絕頂樓臺影]
 바람은 온 하늘에 흩어져 초목의 향기를 전하네 [風散諸天草木香]
 가는 곳곳 가파른 바위산의 흰 구름이 또렷한 발자국을 찍어내니 [行處巖雲生蠟屐]
 앉으면 어느 샌가 푸르른 강물 빛이 선방(禪房) 침상까지 다가오누나 [坐來江色到禪床]
 그 옛날 함께 지낸 옛 친구, 지금 아무도 없으니 [當時老宿今無在]
 망망한 창해(滄海) 속의 이 늙은이, 백발이 새하얗다 괴이타 말게나 [不怪滄翁白髮長]

○重興寺 在登岸峯下 古寺只有三十餘間 及築城後增建爲一百三十六間

- 本朝金農巖昌協詩 高秋箱落洗林丘 喜見三峯天畔浮 絕壁冷霞餘雨氣 壞城斜日暎寒流 藤蘿古道深難取 燈火禪房暝始投 勝處每懷長往志 會攀叢桂共僧留
- 洪世泰詩 一入中興洞 千峯不可分 孤菴問樵子 敗堞吊將軍 古壁花垂雨 春潭氣吐雲 漫山肥膩草 步步佛香聞

중흥사(重興寺): 등안봉(登岸峯) 아래에 있다. 옛날의 사찰은 30여 칸에 불과했으나 북한산성을 축성한 후 증건(增建)하여 136칸이나 된다.

□ 조선시대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시

하늘 푸른 가을 서리, 수림 울창한 산언덕 말끔히 씻어주니 [高秋箱落洗林丘]
 세 봉우리 하늘가에 떠오른 모습 보기도 즐겁네 [喜見三峯天畔浮]
 가파른 절벽길에 싸늘한 노을, 아직도 빗 기운을 머금어 [絕壁冷霞餘雨氣]
 무너진 성벽 위로 석양이 빛기어 차가운 강물 위에 그림자 드리우네 [壞城斜日暎寒流]
 등나무 덩굴 어우러진 옛길을 찾기가 어려워 [蘇蘿古道深難取]
 등잔불이 선방(禪房)에 켜지기 시작하자 지친 몸을 선방에 누인다 [燈火禪房暝始投]
 명승지를 찾을 생각 언제나 품고 있었더니 [勝處每懷長往志]
 계수나무 우거진 곳에 산승(山僧)들을 만나 더불어 지내노라 [會攀叢桂共僧留]

□ 홍세태 (洪世泰)의 시

중흥동에 들어서니 [一入中興洞]
 일천 봉우리 분간하기 어렵구나 [千峯不可分]
 암자가 어디 있느냐고 나뭇꾼에게 물어 [孤菴問樵子]
 무너진 성첩(城堞)에게 장군을 조문하노라 [敗堞吊將軍]
 고벽(古壁)의 꽃들이 꽃비를 흩뿌리고 [古壁花垂雨]
 연못의 봄기운이 구름을 토해내네 [春潭氣吐雲]
 산엔 무성한 들풀이 가득하니 [漫山肥膩草]
 걸음걸음마다 부처님 향기를 맡기에 바쁘구나 [步步佛香聞]

○龍巖寺 在日出峯下 八十七間以下並築城後翹

용암사(龍巖寺): 일출봉(日出峯) 아래에 있다. 87칸이며, 북한산성을 축성한 후에 창건하였다.

○輔國寺 在禁衛營下 一百七十七間 僧琢心明熙等所翹

보국사(輔國寺): 금위영(禁衛營) 아래에 있다. 177칸이며, 승(僧) 탁심(琢心)과 명희(明熙) 등이 창건하였다.

○普光寺 在大成門下 七十一間 僧雪輝所翹

보광사(普光寺): 대성문(大成門) 아래에 있다. 71칸이며, 승(僧) 설휘(雪輝)가 창건하였다.

○扶旺寺 在鵝巖峯下 一百一十一間 僧尋雲所翹

□洪世泰詩 午飯文殊獅嶺東 西峯又宿此禪宮 來穿萬壑爭流處 臥在千林落葉中 秋晚菊花當佛座 夜 寒鈴鐸語天風 山河旺氣偏分占 護得神京力最雄

부왕사(扶旺寺): 휴암봉(鵝巖峯) 아래에 있다. 111칸이며, 승(僧) 심운(尋雲)이 창건하였다.

□ 흥세태의 시

문수봉(文殊峯)과 사자봉(獅子峯) 동쪽에서 점심을 먹고 [午飯文殊獅嶺東]

서봉(西峯)의 선방(禪房)에서 또 하루를 머물렀네 [西峯又宿此禪宮]

만학(萬壑) 사이로 냇물이 다투어 흐르는 곳 [來穿萬壑爭流處]

천림(千林) 우거진 숲속 낙엽을 이불 삼아 드러누워 [臥在千林落葉中]

늦가을 국화꽃이 불좌(佛座) 앞에 아름답게 피어 있네 [秋晚菊花當佛座]

차가운 가을 밤, 방울소리는 하늘의 바람이 거세다고 말해주네 [夜寒鈴鐸語天風]

산하(山河)의 힘찬 기운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펼쳐져 있으니 [山河旺氣偏分占]

이는 도성(都城)을 지키는 힘이 가장 웅대한 곳일세 [護得神京力最雄]

○元覺寺 在甌峯近東 七十四間 僧信楚所翹

원각사(元覺寺): 증봉(甌峯)에서 가까운 동쪽에 있다. 74칸이며, 승(僧) 신초(信楚)가 창건하였다.

○國寧寺 在義相峯下 八十六間 僧清徽徹禪所翹

국녕사(國寧寺): 의상봉(義湘峯) 아래에 있다. 86칸이며, 승(僧) 청휘(清徽)와 철선(徹禪)이 창건하였다.

○祥雲寺 在靈鷲峯下 一百三十三間 僧懷秀所翹

상운사(祥雲寺): 영취봉(靈鷲峯) 아래에 있다. 133칸이며, 승(僧) 회수(懷秀)가 창건하였다.

○西巖寺 在水口門內 一百三十三間 僧廣軒所創

□始稱閔漬寺 以閔文仁遺址在傍故也 後避公諱改今名

□吳月谷瑗詩 客至山寺暝 夕磬猶未歇 却坐清溪石 携來碧峯月 幽巖延遠白 澄景散疏越 風泉漸多聲 群壑涼
籟發 樽酒不成醉 冷然清神骨

서암사(西巖寺): 수구문(水口門) 내에 있다. 133칸이며, 승(僧) 광현(廣軒)이 창건하였다.

□처음에는 민지사(閔漬寺)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민문인(閔文仁)의 유지(遺址)가 그 옆에 있기 때문이다. 그 후에 공의 휘(諱)를 피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었다.

□월곡(月谷) 오원(吳瑗)의 시

어스름녘에 나그네가 산사(山寺)에 이르니 [客至山寺暝]

저녁 풍경소리 아직껏 요란하도다 [夕磬猶未歇]

맑은 시냇가 바위 위에 앉아 있노라니 [却坐清溪石]

푸르른 산봉우리에 달님이 뒤따라 떠오르네 [携來碧峯月]

그윽한 바위산은 멀리 뿌연게 이어지고 [幽巖延遠白]

깨끗한 정경은 나무 그림자들을 성기게 흩뿌리는구나 [澄景散疏越]

바람에 흔들리는 샘물소리 점점 더 거세어지고 [風泉漸多聲]

무수한 산골짜기들엔 차가운 바람소리 울려 퍼지니 [群壑涼籟發]

말술을 들이켜도 취하지 아니하고 [樽酒不成醉]

마음과 뼈 속까지 맑아지기만 하네 [冷然清神骨]

○太古寺 在太古臺下 卽重興寺左峯 高麗僧普愚住此 扁以太古倣永嘉體 作歌一篇及死 李牧隱穡撰碑銘 築城後摠攝僧聖能 普愚遺址經紀靱寺 凡一百三十一間 仍名以太古 又自備物力 刻四書三經 具諺解 少微通鑑 十九史略 唐詩品彙 古文百選 喪禮備要 剪燈新話 三韻通考 千字文 朱子筆 共五千七百板 又備鑄字十一斗 又備黔炭一千六百石 以備緩急之用

□吳月谷瑗詩 下馬禪門一磬清 飄然棕竹入山徑 烟霜衆壑秋容淨 楓樾千巖夕氣晴 溫祚雄圖遺撲盡 麗朝舊刻老苔生 邦家設險勞籌策 鑿翠樓譙拱列營

태고사(太古寺): 태고대(太古臺) 아래, 즉 중흥사 왼쪽 봉우리에 있다. 고려시대 승(僧) 보우(普愚)가 태고사 이곳에 거주하면서 ‘태고(太古)’ 두 글자를 편액(扁額)으로 삼았는데, ‘영가(永嘉)’를 모방한 것이다. 틈틈이 가(歌)를 한 편씩 지어 죽을 때까지 이를 지속하였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그의 비명(碑銘)을 지었다. 북한산성을 축성한 후에 총섭(摠攝)인 승(僧) 성능(聖能)이 보우의 유지(遺址)에 태고사를 창건하였는데, 총 131칸으로 그 이름을 태고사라 하였다. 또한 이 태고사에서서는 사비(私費)로 사서삼경(四書三經)·구언해(具諺解)·소미통감(少微通鑑)·십구사략(十九史略)·당시품회(唐詩品彙)·고문백선(古文百選)·상례비요(喪禮備要)·전등신화(剪燈新話)·삼운통고(三韻通考)·천자문(千字文)·주자필(朱子筆) 등 모두 5,700판(板)을 판각하였다. 또한 주자(鑄字) 11두(斗)를 준비하였고, 또 검탄(黔炭) 1,600석(石)을 마련하

여 위급할 때에 쓰도록 대비하였다.

□ 월곡(月谷) 오원(吳瑗)의 시

하마(下馬)하여 선문(禪門)에 이르니 풍경소리 맑게 울려 퍼지는데 [下馬禪門一聲清]

표연(飄然)히 종려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산길로 들어가노라 [飄然棕竹入山徑]

물안개와 서리 내리는 못골짜기에 가을의 모습 깨끗해 [烟霜衆壑秋容]

무수한 산봉우리에 단풍빛 산뜻하고 저녁 산기운 맑게 퍼지네 [楓歷千巖夕氣晴]

온조왕(溫祚王)의 웅대한 포부, 옛 성터와 함께 사라지고 [溫祚雄圖遺撲盡]

고려(高麗)의 옛 흔적, 바위 위에 이끼 되었네 [麗朝舊刻老苔生]

국가에서 험준한 곳에 성곽을 세워 방비에 노고하니 [邦家設險勞籌策]

비취빛 아름다운 누각을 세워 여러 영채들을 감싸안게 하였노라 [鑿翠樓護拱列營]

○鎮國寺 在露積峯下 中城門之內 八十五間 僧聖能所創

진국사(鎮國寺): 노적봉(露積峯) 아래 중성문(中城門) 안에 있다. 85칸이며, 승(僧) 성능(聖能)이 창건하였다.

○奉聖菴 在龜巖峯下 二十五間 僧聖能所創

봉성암(奉聖菴): 구암봉(龜巖峯) 아래에 있다. 25칸이며, 승(僧) 성능(聖能)이 창건하였다.

○元曉庵 在元曉峯下 十間 僧聖能所創

원효암(元曉庵): 원효봉(元曉峯) 아래에 있다. 10칸이며, 승(僧) 성능(聖能)이 창건하였다.

● 누관(樓觀)

○沆瀣樓 在重興寺洞口跨溪 有偃龍橋上建二層樓 僧聖能所創 有大提學李德壽所撰上樑文

항해루(沆瀣樓): 중흥사(重興寺) 동구(洞口)에서 시냇물에 발을 디디면 언룡교(偃龍橋)가 있다. 언룡교 위쪽에 2층 누각이 있으니 이것이 항해루이다. 승(僧) 성능(聖能)이 창건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이덕수(李德壽)가 지은 상량문(上樑文)이 있다.

○山映樓 重興寺前舊有小橋 覆以閣卽此樓今廢

□ 吳月谷瑗詩 靑藜拄遍水東西 霜落層峯日氣淒 秋樹可能留去馬 虛樓不忍別清溪 崇城萬雉看人力 伯氣千年聽鳥啼 多愧書生無遠略 一樽雙屐只相携

산영루(山映樓): 중흥사(重興寺) 앞에 옛날의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누각을 덮어 지었다. 그 누각이 바로 이 산영루인데, 지금은 없어졌다.

□ 월곡(月谷) 오원(吳瑗)의 시

청려장(靑藜杖)을 짚고 이리저리 냇물의 동서를 거니노라면 [靑藜拄遍水東西]
 겹겹이 둘러싸인 산봉우리에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쌀쌀해진다 [霜落層峯日氣淒]
 가을날의 나무들, 길 떠나려는 말(馬)을 제 자리에 묶어두고 [秋樹可能留去馬]
 텅 빈 누각, 차마 나로 하여금 맑은 시냇물과 이별하지 못하게 해 [虛樓不忍別清溪]
 높은 성의 웅장한 규모, 인력(人力)의 많았음을 헤아릴 수 있겠구나 [崇城萬雉看人力]
 백이·숙제의 그 기백, 천 년이 흘렀어도 새 울음소리 속에 전해지고 있네 [伯氣千年聽鳥啼]
 원대한 지략 없는 이 못난 서생(書生), 부끄럽기 그지없어라 [多愧書生無遠略]
 지닌 것이라곤 다만 술 한 독에 나막신 두 짝뿐이로세 [一樽雙履只相携]

○洗心樓 在西巖寺前溪上

세심루(洗心樓): 서암사(西巖寺) 앞 시냇물 위에 있다.

◎ 교량(橋梁)

○喚仙橋 在盤龍潭下扶旺洞口

환선교(喚仙橋): 반룡담(盤龍潭) 아래 부왕동(扶旺洞) 입구에 있다.

○偃龍橋 在沈澗樓

언룡교(偃龍橋): 향해루(沈澗樓) 아래에 있다.

○降仙橋 在中城瀑上

강선교(降仙橋): 중성(中城) 폭포 위에 있다.

○喚仙橋 在鶴峴下紫霞洞口

환선교(喚仙橋): 학현(鶴峴) 아래 자하동(紫霞洞) 입구에 있다.

○鳳凰橋 在女妓潭下

봉황교(鳳凰橋): 여기담(女妓潭) 아래에 있다.

○靑雲橋 在中城外長春洞

청운교(靑雲橋): 중성문(中城門) 밖 장춘동(長春洞)에 있다.

○白雲橋 在祥雲瀑下

백운교(白雲橋): 상운(祥雲) 폭포 아래에 있다.

◎ 창廩(倉廩)

○經理廳上倉 在行宮右有廳事 扁以八非軒 管城將前統制使李珥爲文以記

경리청상창(經理廳上倉): 행궁(行宮) 오른쪽에 청사(廳事)가 있다. 「팔비현(八非軒)」이라는 편액(扁額)이 있다. 관성장(管城將)인 전(前) 통제사(統制使) 이우(李珥)가 글을 지어 기록해 놓았다.

○中倉 在重興寺前

중창(中倉): 중흥사(重興寺) 앞에 있다.

○下倉 在西門內

하창(下倉): 서문(西門) 안에 있다.

○平倉 在蕩春臺

평창(平倉): 탕춘대(蕩春臺)에 있다.

○戶曹倉 在行宮前 御供米藏于此

호조창(戶曹倉): 행궁(行宮) 앞에 있으며, 어공미(御供米)를 호조창에 저장하였다.

○訓練都監留營 在露積峯下

훈련도감유영(訓練都監留營): 노적봉(露積峯) 아래에 있다.

○禁衛營留營 在普光寺下

금위영유영(禁衛營留營): 보광사(普光寺) 아래에 있다.

○御營廳留營 在大成門內

어영청유영(御營廳留營): 대성문(大成門) 안에 있다.

◎ 정계(定界)

○自北門至達峴立標 自元曉峯至老姑山蟬峯立標 自水口門至紙匠里老姑山脊立標 屬訓練都監

□自大成門東至貞陵里前立標 自東門東至水踰峴立標 自東將臺至嶂峴立標 自龍巖峯至牛耳川立標 屬禁衛營

□自女岐淵至紙匠里馬墳立標 屬御營廳

북문(北門)으로부터 달현(達峴)까지 표를 세웠고, 원효봉(元曉峯)으로부터 노고산(老姑山) 선봉(蟬峯)까지 표를 세웠으며, 수구문(水口門)으로부터 지장리(紙匠里), 노고산(老姑山) 등성까지 표를 세워서 훈련도감에 소속시켰다.

□대성문(大成門)으로부터 동쪽으로 정릉리(貞陵里) 앞까지 표를 세웠고, 동문(東門)으로부터 동쪽으로 수유현(水踰峴)까지 표를 세웠으며, 동장대(東將臺)로부터 장현(嶂峴)까지 표를 세웠고 용암봉(龍巖峯)으로부터 우이천(牛耳川)에 이르기까지 표를 세워 금위영에 소속시켰다.

□여기연(女岐淵)으로부터 지장리(紙匠里) 마분(馬墳)까지 표를 세우고 어영청에 소속시켰다.

◎ 고적(古蹟)

○古石城 在重興寺北 周九千四百七尺 有石門及門址

고석성(古石城): 중흥사(重興寺) 북쪽에 있으며, 그 주위는 9,417척(尺)이며, 석문(石門)과 문지(門址)가 있다.

○神穴寺 高麗顯宗祝髮寓此寺 千秋太后屢遣人謀害 有老僧穴地於室而匿之 上置臥榻 以防不測 一日王偶題溪水詩云 一條流出白雲峯 萬里滄溟路自通 莫道潺湲巖下在 不多時日到龍宮

신혈사(神穴寺): 고려 현종이 머리를 깎고 이 절에 우거(寓居)하였다. 천추태후(千秋太后)가 여러 번 사람을 보내어 현종을 해치려 하므로 노승이 굴을 파서 방을 만들어 그를 숨기고, 그 위에 와榻(臥榻: 침대)을 설치해 두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자객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어느 날 문득 현종이 시냇물을 시제(詩題)로 하여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한줄기 작은 냇물이 백운봉으로부터 흘러나와 [一條流出白雲峯]

만리(萬里) 밖 푸른 바다와 잇닿아 흐른다 [萬里滄溟路自通]

줄줄 흐르는 냇물이 바위 밑에 있다 말하지 마오 [莫道潺湲巖下在]

머지않아 이 냇물이 용궁(龍宮)에 이르러나오 [不多時日到龍宮]

○崔公戰地 俗以將軍峯 爲高麗崔瑩戰地 而本傳無所考未詳

□本朝鄭東溟斗卿詩 崔公昔破賊 此地戰場開 大樹今猶在 將軍獨不廻 峯如劍色動 爆似鼓聲來 緬邈前朝事 回風日暮哀

□又 麗季華亡日 崔公鏹賊年 雲林遊客到 戰伐野僧傳 大樹空山裏 春花廢寺前 危峯似長劍 還憶倚青天

최공전지(崔公戰地): 속칭 장군봉(將軍峯)이라고 부른다. 고려시대에 최영(崔瑩)이 전쟁한 곳이라고 하나, 장군의 본전(本傳)에는 근거가 될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 조선시대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의 시

그 옛날 최공(崔公)이 적군을 깨뜨리니 [崔公昔破賊]

바로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다오 [此地戰場開]

대수(大樹)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大樹今猶在]

장군만은 홀로 돌아오지 못하누나 [將軍獨不廻]

산봉우리는 검(劍)처럼 빛을 뿌리고 [峯如劍色動]

폭포수는 북처럼 큰소리치며 떨어지네 [爆似鼓聲來]

아득한 옛 왕조의 일들을 회상하니 [緬邈前朝事]

바람이 굽이치며 저물어 가는 이 저녁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노라 [回風日暮哀]

□ 동명 정두경의 시

고려(高麗) 말, 나라가 망할 무렵 [麗季華亡日]

최공은 잇달아 적을 쳐부수었도다 [崔公鏹賊年]

흰구름 머무는 숲속에 유람객이 찾아오니 [雲林遊客到]

전쟁과 정벌의 옛 이야기를 야승(野僧)에게서 들었네 [戰伐野僧傳]

덩 빈 산속에 거목(巨木)이 우뚝 솟아 있고 [大樹空山裏]

폐사(廢寺) 앞엔 봄꽃이 피어나고 있네 [春花廢寺前]

가파른 산봉우리는 마치 장검(長劍) 같은 모습이라 [危峯似長劍]

또한 푸른 하늘에 기대어 우뚝 서 있는 듯하네 [還憶倚青天]

○閔公遺棲 高麗文仁公閔漬遺址在水口門內 名其巖曰閔漬巖 名其寺曰閔漬寺 寺今爲西巖寺

□本朝鄭東溟斗卿詩 閔老幽棲處 樵夫亦自傳 少微星不見 七里懶依然 叢樹攀疑柱 奇峯望或蓮 終當謝簪紱 來臥白雲邊

□洪世泰詩 閔漬巖頭花正紅 倚花吹笛向春空 不愁前路穿雲遠 且坐松風潤水中

민공유서(閔公遺棲): 고려 문인공(文仁公) 민지(閔漬)의 유지(遺址)가 수구문 내에 있다. 그 바위를 민지암(閔漬巖)이라 부르고, 그 절을 민지사(閔漬寺)라고 부른다. 지금은 그 절을 서암사(西巖寺)라고 부른다.

□ 동명(東溟) 정두경의 시

민지(閔漬) 노옹(老翁)이 은둔해 살던 곳 [閔老幽棲處]

나무꾼들이 서로 알려줘 전해오고 있네 [推夫亦自傳]
 소미성(少微星)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少微星不見]
 칠리뢰(七里懶)는 여전히 흐르고 있어 [七里懶依然]
 무리지어 자라는 나무를 붙들고 오르다가 계수나무 아닌가 의심도 해보고 [叢樹攀疑桂]
 기이하게 생긴 산봉우리를 연꽃이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해보기도 하네 [奇峯望或蓮]
 언젠가는 마침내 비너 풀어 모자 벗고 관직을 떠나리 [終當謝簪紱]
 흰구름 머무는 곁으로 와 드러누워 보리라 [來臥白雲邊]

□ 홍세태(洪世泰)의 시

민지암(閔漬巖) 산마루에 핀 꽃 붉기도 하네 [閔漬巖頭花正紅]
 꽃나무에 기대어 봄하늘 바라보며 피리를 불어본다 [倚花吹笛向春空]
 가야 할 길, 저 멀리 흐니구름 너머 있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않노라 [不愁前路穿雲遠]
 솔바람 부는 시냇물 가운데 바위 위에 한가로이 앉아서 [且坐松風潤水中]

○惟此北城之築實出於 肅廟爲萬世深遠之謨 而既築之後議論多端 近年以來則便置之度外 無復如當時 諸相公之極意規畫 亦安知前功之不歸於盡棄耶 賤僧猥被諸相公使令拋却 山門本分竭力奔走 於此事者已三十年矣 才卸重擔將還故山 謹錄山城事十四條 名之曰北漢志 與新總攝瑞胤上人 商議以付劄劄氏略識卷末如此云爾 乙丑十一月上澗山人聖能識

이 북한산성의 축성은 숙종 때에 시작되었으며 만세를 염두에 둔 심원한 계획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축성한 이후에는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곧 아무도 이를 거론 건의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당시 여러 재상들처럼 전심전력을 다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즉 지난날의 공훈도 모두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미천한 중이 외람되게도 여러 재상들의 은혜를 입어 승려의 본분을 버리고 북한산성에 관계되는 일에 전력하면서 동분서주한 지가 이미 30여 년이 되었다. 이제 겨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정다운 옛 산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삼가 산성(山城)에 관한 일을 14항목으로 기록하여 이름을 『북한산지(北漢山誌)』라고 지어, 신임 총섭(摠攝) 서운(瑞胤) 상인(上人)에게 건네어 준다.

서운과 상의하고 조각가에게 부탁하여 책 끝에 이와 같은 것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을축(乙丑) 11월 상한(上澗)에 산인(山人) 성능(聖能)이 짓다.